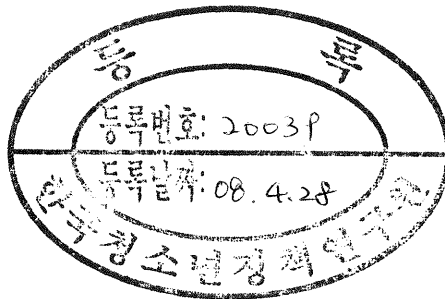


고
상희
첨언 06.1.10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오해섭 이민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요 약

요 약

I.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이다. 2004년도 제1차 기초연구를 통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제2차년도인 2005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마지막 연도인 2006년의 주제는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의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이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 및 실행모형을 탐색하였다.

둘째, 미래적 지향적 가치에 초점을 둔 중장기적 청소년교류협력시스템과 교류협력모형을 추진주체별로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협력의 주요 내용, 시사점,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의 영역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와 새로운 추진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효율적인 청소년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방안 등이 포함된 동북아 공동체 형성 및 청소년교류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정책제언

동북아 국가간 이상적인 청소년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정치·경제적인 측면의 확고한 인프라구축을 토대로 다방면의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1. 다양한 국제이해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 교육실시

아시아공동체(Asia Union)의 비전 설정 및 문화적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예산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지원 확대
- ③ 학계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활성화
- ④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필요
- ⑤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3. 청소년교류협력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기능 강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과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기능 강화, 동북아 청소년의 대한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동북아 청소년 장차관 및 전문가 회의 정기적 개최

- ① 청소년 교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현안 및 해결방안, ②외

국청소년 전용숙소 설치, ③청소년 NGO의 네트워크,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④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 교환학생제, 동북아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다양한 사업 개발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개별 국가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아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와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동북아 청소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6.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분담

동북아 각 국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자율권 보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청소년국제교류정책 입안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향과 행정 지원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행령 및 관련 규칙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분담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7. 한중일 국제교류사업으로 『동북아 청소년의 배』 추진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청년의 배』와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청소년들이 1주에서 4주까지 선내 공동생활을 하면

서 그룹 토론, 각국의 문화 소개, 클럽활동, 과제활동 등 각종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중일 각 국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 기항지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각 국의 청소년 코어리더육성 및 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별 혹은 테마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8. 한중일 청소년교류 촉진을 위한 이동수단 및 이용시설 할인 혜택 부여

현재 한일노선과 한중노선의 항공권은 동남아시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오히려 여행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북아 공용 자유항공권 및 선박할인권』, 『동북아 유스레일 패스』, 『국립공원 및 문화유적지 할인권』,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수련시설 숙박 이용권』, 등을 개발하여 한중일 청소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II.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과제	7
1. 21세기 동북아 지역공동체형성의 비전	9
2.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구축의 선결과제	11
III.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의 모형구상	17
1. 청소년문화공동체의 기본방향	19
2. 청소년문화공동체의 범위와 단계적 접근방안	21
3.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협력 구조 및 시사점	24
IV. 추진주체별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모형 정립	29
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체 구성의 시의성	31
2.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모형정립	34
3.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	36
4. 민간 청소년교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39
5.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협력 모델	42
V.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 단위사업 분석	49
1. 외국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모델 유형 분석	51
2. 국내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 분석	71

VI.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 모델 개발	117
1. 모델 개발의 전제조건 및 영역구분	119
2.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영역별 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121
3.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평가지침 및 유의점	133
4. 우수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사례 개발	139
 VII. 청소년국제교류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지원방안 ...	149
1. 중장기적 청소년교류정책 수립 및 재정확보	151
2.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수행	152
3.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분담	154
4.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체계 확립	155
 VIII. 요약 및 정책제언	163
1. 연구결과 요약	165
2. 정책제언	167
 참고문헌	173

표 목 차

<표 V-1> 일본국립 청소년종합센터 2006년 사업가이드	76
<표 VI-1>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영역구분	120
<표 VI-2>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122
<표 VI-3>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평가지표	123
<표 VI-4> 국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25
<표 VI-5> 국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평가지표	127
<표 VI-6> 오지탐험 및 심성강화 프로그램	130
<표 VI-7> 오지탐험 및 심성강화 프로그램 평가지표	132
<표 VII-1> 행정 분야별 국제 청소년교류의 제도적 현황	158
<표 VIII-1>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71

그림 목 차

[그림 II-1] 미래 동아시아 지역네트워크 모형	11
[그림 III-1]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범위	22
[그림 III-2] 노르딕 국가들 간의 청소년정책연구 협력구조	26
[그림 IV-1]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협력 모형	35
[그림 IV-2] 동북아 청소년전문가포럼 구성 모형	39
[그림 IV-3] 민간단체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모형	41
[그림 IV-4]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협력 모형	44
[그림 IV-5]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추진절차	45
[그림 VII-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영역	156
[그림 VII-2] 청소년교류의 제도적 추진체계	157
[그림 VII-3]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체계	161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가 거듭할수록 국제적 분위기는 이념과 민족주의보다는 경제적 실리가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분야에서는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산업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단위 정착생활에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유형의 유목민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국제화의 시대의 지식기반 산업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주된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제교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중요한 계기와 함께 글로벌리더십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민간외교의 중추적인 분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교육과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구축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3국은 지속적인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교류의 이상적인 모형정립과 다양한 실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역사적 혹은 문화적 유사성과 함께 상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민족성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특수성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과제이다. 2004년도 제1차 기초연구를 통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와 2005년도에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인프라구축”에 관한 제2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도 연구는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의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공동체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미래적 가치에 초점을 둔 중장기적 청소년교류협력시스템과 교류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문화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 및 청소년교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다섯째, 효율적인 청소년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1) 동북아 3국 중심의 청소년 문화공동체 모형을 구상한다.
- (2)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 정책 및 단위 사업을 분석한다.
- (3)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협력의 영역별 모델을 개발한다.
- (4) 청소년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 (5) 국내외 청소년교류프로그램 사례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 (1) 관련문헌 고찰

청소년국제교류 및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논문, 저서 등과 같은 관련문헌고찰이다.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조직 및 정책 동향파악, 국제교류 사업 사례에 대한 인터넷 자료 검색, 정부보고서나 관련부처 내부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다.

(2)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전문가 집단 워크숍 개최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현황파악과 단위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조직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인터넷 공모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우수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국제교류의 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국제교류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평가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방식을 채택하였다.

(4) 기 국제교류참가자 인터뷰조사

국제교류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이다. 정부 혹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국제교류활동에 참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장단점, 타당성, 실용성,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 조사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과제

II.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과제

1. 21세기 동북아 지역공동체형성의 비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고의 한 영역으로 “과연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청소년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한 직설적 답변은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을 완성하고 일본이 태도를 바꾸어 역사적 반성과 과거 청산과 같은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 준다면 동북아 지역의 건전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공동체(Asia Union)의 비전이 설정되고 문화적 기반을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앞서 각 나라마다 저마다 고유한 개성적인 문화가 있음을 전제로 사고의 보편문화 확산노력과 문화공동체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저터널을 만들고 고속열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여 물류교역을 촉진효과와 더불어 국가별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특구라인을 구축하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를 자유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급속도로 확장되는 해양시대에 걸 맞는 인적·물적 교류네트워크를 확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통일을 기점으로 휴전선에 평화도시를 건설하고 아시아 공동체(AU)본부와 아시아 공동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된 금융 제도를 정립하여 아시아 공동체의 통화를 기반으로 단일통화를 만들어 동북아 무역의 결제통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다. 한중일을 포함하여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인도가 동참하는 아시아 공동 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분쟁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바탕 위에 문화적·경제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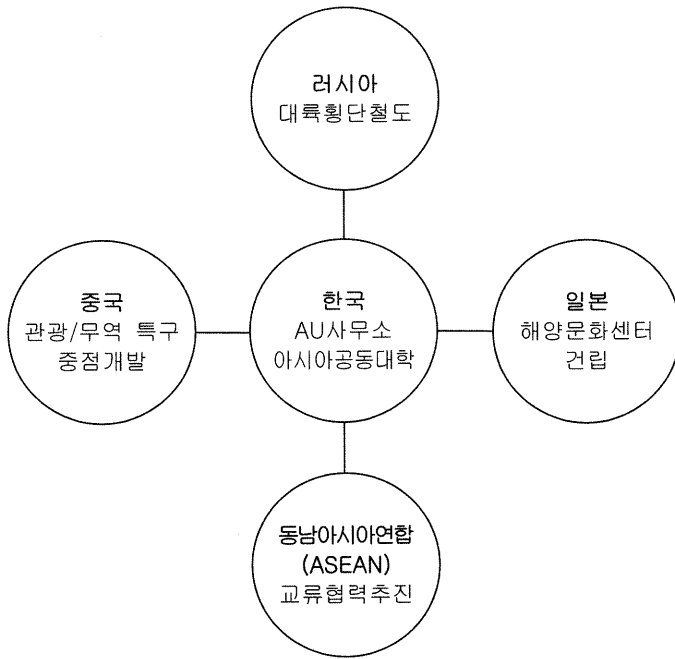
한중일 3국간 역사왜곡이나 영토분쟁과 같은 몇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3국간 무역과 금융시장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느 나라와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구역을 활성화시켜 유리한 경제권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아시아 전역에서 역내 무역의 비중이 최근 부품 무역이 급증하면서 전체 무역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 무역이 증대하면서 결제 수단인 달러가 오르내림에 변동이 심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에 필적하고 그들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 통화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도 환차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유럽의 경우도 1999년 1월 역내 통화로서 유로화를 탄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유럽 국가간 무역에 대한 결제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나 불안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달러 약세에 대한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을 키우고 역내 무역의 비중을 한 층 더 높이는 동시에 역내 통화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국가별로 엔, 위안화, 한화 등이 강세가 되어 경제와 서민 경기 모두 미국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유로 경제권이 미국 경제로부터 독립하여 동유럽이나

중동으로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가세하여 새로운 아시아 경제권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림 II-1] 미래 동아시아 지역네트워크 모형

2.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구축의 선결과제

우리는 현재 지리적인 국경이 없는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간 혹은 민족간의 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글로벌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 간의 문화적인 소통과 활발한 교류는 국제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확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간 갈등과 종교적인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와 공존을 달성해야하는 당위성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일 삼국은 역사인식의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미래적 가치를 반영한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보장되는 동아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침략과 전쟁, 그리고 그에 대한 항전으로 얼룩졌던 과거사에 대한 이성적인 반성과 청산을 전제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먼저 가해국인 일본은 역사적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후보상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피해국들은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공식적인 자료에 과거사를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일본과의 협정체결과 등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일본의 전쟁책임 및 사죄 그리고 전후보상을 이끌어 내야하며, 그 연대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동아시아 시민연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마련을 위한 시민연대의 모색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2년 3월 중국의 남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3개국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체한 국제학술대회가 시작으로 동경과 서울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002년 5월에는 평양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는 아시아 각국의 저명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토론회의 계속적인 추진과 국제연대기구의 창설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시민운동의 교류확대는 동아시아 피해국가간의 연대 가능성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북아 국가간 이상적인 청소년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정치·경제적인 측면의 확고한 인프라구축을 토대로 다방면의 사회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차원의 청소년문화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문화공동체형성 혹은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인터넷망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문화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이미 주요 도시, 주요 항구간의 무역, 운송, 금융, 관광, 환경보호, 정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분야에서 인터넷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지구촌 문화공동체 형성의 접근 용이성과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간의 다각적인 청소년교류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인재양성 전략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수요층이 두터운 영화 및 음악 등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 문화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 그리고 학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국은 나름대로 청소년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편견과 상호간의 입장차로 인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청소년 문화산업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하려는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

정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듯이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몇몇 지역을 둘러보는 식의 국제교류는 그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는 동북아시대 구상은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에 기초하여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동운명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국가간 이상적인 청소년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인 정치·경제적 측면의 확고한 인프라구축을 토대로 다방면의 사회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차원의 청소년문화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추진되어야 할 측면은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의 문화공동체형성 혹은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유럽 국가들 간에는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적 교류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완화 및 출입국절차 간소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범위가 동유럽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동북아공동체 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민간차원의 협력기금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청소년문화
공동체의 모형구상

Ⅲ.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의 모형구상

1. 청소년문화공동체의 기본방향

문화적 요인은 곧 세계화의 전제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발전은 문화적 배경을 공통분모로 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과 사이버문화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문화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협력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

첫째, 21세기는 문화 및 예술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 국제교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시기로서 문화자본의 중요성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국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유교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에는 디지털 및 사이버 문명이 사회 전체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어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협력의 구도는 한·중·일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 한·중·일 3국은 과거에 자주 등장하던 부메랑효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동아시아의 교역협력에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및 러시

아 등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동아시아에서도 시장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쟁과 협력의 통상기조 역시 고수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WTO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경쟁과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상 및 교류분위기는 동아시아의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호협력의 구도는 21세기 동아시아 공존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단순한 외생적 변수 차원을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파트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통상관계를 비롯하여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어학연수를 포함한 유학생 교류, 대중문화 개방, 관광 및 여행, 민간단체교류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기조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문화적인 특성과 공통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공동운명체적으로 움직여온 점과 지정학적 위상이 문화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교역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의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 짓고 관련 국가들이 모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갈수록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 및 상호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적

도자들을 필두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발전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실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과거를 치유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 모두가 국제교류의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개별 당사국의 폐쇄적인 상태에서의 독자적 성장욕구는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간 경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의 지구촌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공생의 이념아래 움직여질 것이므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공동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청소년문화공동체의 범위와 단계적 접근방안

국가간의 상호교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비롯한 문화교류과정에서 항상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한·중·일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민족과 철학적인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자금, 기술, 자원, 시장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분명하며, 문화적인 공통점과 다양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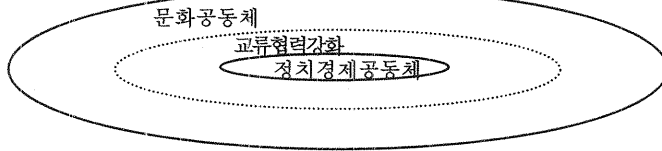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성은 각국의 분야별 접근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상호호혜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가

미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문화교류에서도 결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 기본방향**

- 정치경제교류협력과 청소년문화교류의 이념분리
- 각 국의 국제교류 현황과악 및 현 상황 고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의 역할 분담
- 다양한 영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호주의 원칙

*** 범위 및 한계**



*** 구체적 방안**

- 행정적 지원방안 및 법제도 정비
- 동북아 청소년교류 협력기금 조성
- 중앙, 학계, 지자체, 민간의 청소년교류 협의체 구성
- 정치·경제·문화·교육정책 간의 조화

[그림 III-1] 청소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범위

과거 선진국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업주의적인 색채만을 견지한 채로 침투하여,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와 사회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활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어왔음을 서로가 인지해야 한다. 특히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업주의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결과 막대한 부존자원을 소유

하고서도 종속이론의 대상 국가들로서 제3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서로가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면의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기본 틀을 [그림 III-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선행적 협력과 병행하여 경제공동체로서의 과도기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 주요 도시간의 인터넷망을 비롯한 각종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각국의 주요 도시, 주요 항구간의 무역, 운송, 금융, 관광, 환경보호, 정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활용한다. 도시는 지구촌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접근 용이성과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동연구를 행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가 21세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자간 문화공동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에 정통하고 본 지역 언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수요층이 두터운 영화 및 음악 등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동아시아지역 문화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국이 나름대로의 문화자원개발 및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3국간의 기나긴 교류과정에서 조성된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 혹은 무형문화재들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존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전 세계적인

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하려는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듯이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몇몇 지역을 둘러보는 식의 국제교류는 그 효과 면에서 회의적인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계획된 동북아시아 구상은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에 기초하여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동운명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유럽연합(EU)의 청소년교류협력 구조 및 시사점

1) EU국가간 청소년교류 협력구조

지난 몇 년간 유럽연합은 청소년분야에서 지역 내 국가간의 협력과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으며,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01년 ‘유럽 청소년정책에 관한 백서

(White Paper-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을 발간했는데, 이 백서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구조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정책의 명확하고 중요한 요소가 되는 청소년참여를 통해 공동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에서 청소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존재하는 유럽의 통합을 위한 과정과 노력에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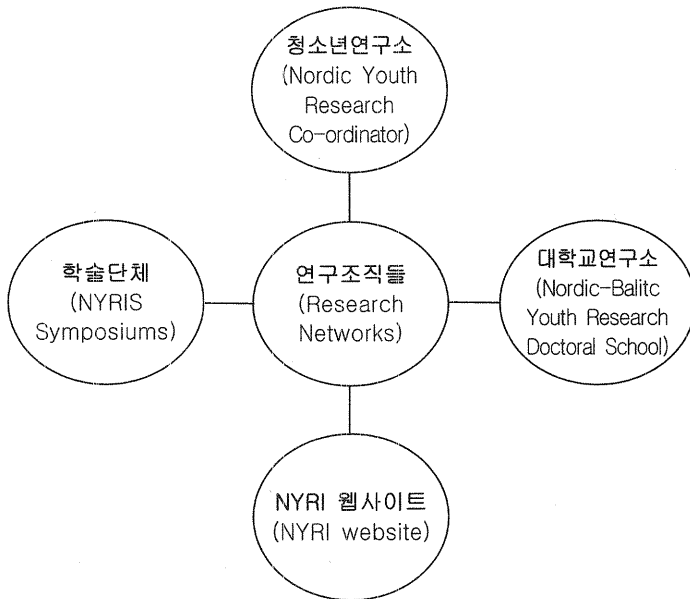
청소년교류정책의 목표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며,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관을 강화하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에 대항하며, 연대의식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기상 선도의식 및 창의성을 격려하며 비형식교육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청소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있다.

청소년교류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 YOUTH programme(청소년프로그램)이다. YOUTH programme은 하나의 단일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청소년사업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 프로그램은 15-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성(mobility)을 가진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30개국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단체교류나 개별적인 자원 활동 모두 참가가 가능하다.

2000년 4월,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는 YOUTH programme을 채택하였다. ‘청소년프로그램’은 이전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지식습득과 청소년정책개발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은 ‘청소년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다음 사항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①유럽청소년교류(Youth for Europe exchange) ②유럽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European Voluntary Service) ③집단교류활동과 미래자본(Group Initiatives and Future Capital) ④교육프로그램인 SOCRATES와 직업훈련인 LEONARDO DAVINCI와의 연계활동 ⑤지원수단(supporting measures) 등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Youth for Europe’ 프로그램과 ‘European Voluntary Service’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 지역단위의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였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또한 [그림 III-2]에서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가간 청소년 정책을 비교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림 III-2] 노르딕 국가들 간의 청소년정책연구 협력구조

YOUTH programme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지만 기타 지역, 국가들을 참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의 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 미가입국(동유럽 국가 및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 3세계와도 실행이 가능하다.

2) EU국가간 청소년교류협력이 주는 시사점

유럽국가들의 청소년 교류사업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국가 투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방법 및 수단으로 본다면 사회 안전망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용성 있고 가치 있는 이웃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의 시작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웃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각국 간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업에의 기여 그리고 이웃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접변 및 문화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타문화의 경험과 이해의 통로를 터 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인 있다.

이러한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미래의 투자로 간주하여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이 사업 영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 왔던 독일의 경우 실지로 유럽 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에 대한 성과는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비교적

충실한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를 본보기로서 삼고 있다.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 하위 목표들과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왔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영역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보편화된 이래로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직업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에는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교류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한 자신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와 지구촌에서 각 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새로운 조건 및 환경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물론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국제 문화 학습 능력과 문화체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 개별회원국의 차원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속하는 개별 국가와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영역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하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은 각 개인들 사이의 만남을 보다 개방하여 이를 통한 상호이해 및 유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지역 주민들 사이의 공영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추진주체별 동북아 청소년 교류협력모형 정립

IV. 추진주체별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모형 정립

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체 구성의 시의성

세계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럽은 1991년 12월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따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미주대륙은 1992년 8월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단일 경제체제로 재편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967년 이래 이 지역의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결성하여 경제·문화발전과 과학기술, 식량·에너지, 안전보장 등에 대한 협력과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예컨대 1983년 ASEAN 라운드에서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대일 수출품의 무관세화와 관세 대폭 할인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가 있다. 또한 자체 내에서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2년에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greement : AFTA)을 체결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대만, 홍콩과 아세안 회원국을 구성멤버로 1989년 결성되어 역내 자유 무역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지역협력체는 ASEM(Asia-Europe Meeting)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개국 및 동남아의 아세안 회원국, 유럽연합(EU) 등 모두 2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상회의이다.

한편, 국제 우호 친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현

황 및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박진규, 2004).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목적과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통상부가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제 우호 친선·재외동포의 지위 증진을 위한 청소년교류가 있다.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외교백서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원칙과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 (교류)정책의 기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편, 외국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실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정부는 2002년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로코, 핀란드, 베트남, 헝가리, 몽골, 러시아, 멕시코, 칠레, 아세안 회원국 등과 600여명 규모의 상호교류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일본과 청소년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양국 정부 주관의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에 따라 각 20명의 대학생대표단이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2002 월드컵 공동개최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2002년 7월 한·일정상은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스포츠 및 청소년 교류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다.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도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부장관이 청소년 교류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수교이후 실시되어 온 양국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국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과거 20명씩 교환하여온 청소년 대표단의 규모를 2001년부터는 4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2년 한·중 국

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년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 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10 개국과의 청소년교류사업은 1996년 한·ASEAN 확대 외무부장관 회담 시 우리 측 제의에 따라 2002년에도 44명이 ASEAN 회원국 6 개국을 방문했으며, ASEAN 청소년 120명을 초청한 바 있다. 청소년 교류가 청소년들 간의 우의증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외교백서 2003, 2004).

외교통상부 주도의 우호 친선 등의 분야에서는 3개의 법률에 근거해서, 그리고 각각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별개의 기관에 의해 청소년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이 법에 의한 국제교류의 사업이다. 한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할 법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1991년에 제정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에는 ①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②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③국외에서의 한국연구에 대한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④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⑤외국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⑥기타 등이 있다(제6조).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 국가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할 것과(제1조), 재외동포 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행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한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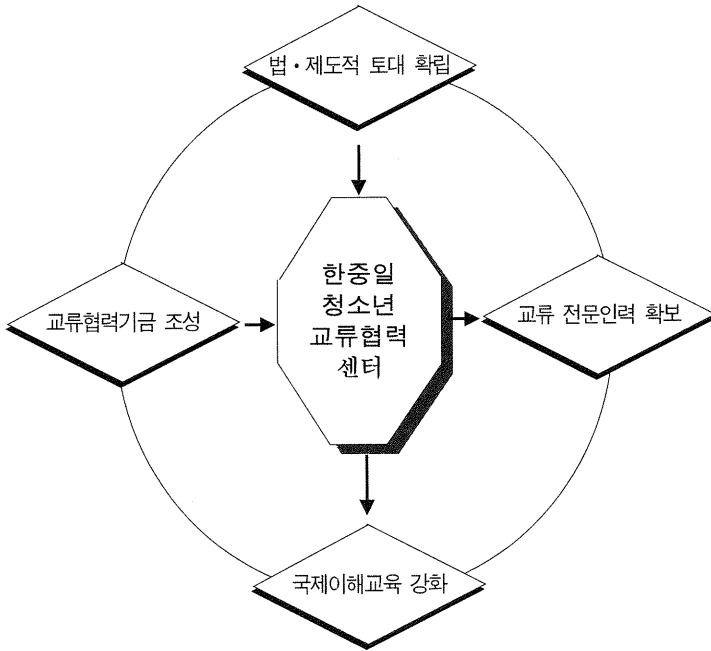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주간(매년 10월 넷째주)에 맞추어 ‘세계한민족문화제전’을 개최하여 재외동포예술인의 예술역량 및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동포사회문화, 예술증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민족으로서 거주 국내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재외동포 우수청소년 모국체험연수, 국외입양동포 모국연수 등을 통하여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법에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사업, 프로젝트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제7조).

2.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교류협력 모형정립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국제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현황 및 실태분석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그림 IV-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국은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법제도의 정비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중일 교류협력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이 분야의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과 같은 국제교류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림 IV-1]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협력 모형

1) 동북아 청소년네트워크 구축

청소년NGO의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2)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센터 건립

청소년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교류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

류활동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동북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북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북아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

3) 동북아 청소년센터 및 연구센터 설립

동북아의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류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 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설기구로서 동북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동북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북아청소년연구원을 두어 동북아시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청소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4)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유네스코본부, 혹은 정부 간 기구와 협의하여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센터를 국내에 유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더 넓게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교류중심으로 발전시킨다.

3. 학계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안

1) 협의체 구성 방안

첫째, 동북아 3국, 각 국이 연구자 집단과 교육자 집단이 참여하는 ‘(가칭)청소년교류협력센터’를 단위국가 수준의 협의체로 구성하고, 이들 3국 협의체가 모여 하나의 ‘(가칭)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를 구성한다. 이는 그 동안 일회적 또는 단기적인 청소년 교류가 참여

인원이 소수임은 물론 행사위주 프로그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어학원이나 여행사 등 일부 자격 미달의 민간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국제교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인력과 자금 부담은 국가간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3국이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조직구성은 2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1안은 청소년교육교류협의회(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교류지원)와 청소년연구교류협의회(교수나 연구자, 학회 간, 연구기관 간 지원)로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셋째,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간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공동 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매뉴얼 개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다양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수행 지원과 평가 사업,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각국의 ‘청소년교류협력센터’ 역시 초중등학교 교류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연구기관 교류협의회, 관련 학회 교류협의회 등 4개의 하부 조직을 두고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추진하되, 매년 초 결정되는 ‘동북아청소년교류협력센터’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국의 청소년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간 교류지원(연구자들의 교류 협력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의 질 높은 교류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청소년교류 지원) 등을 수행한다.

2)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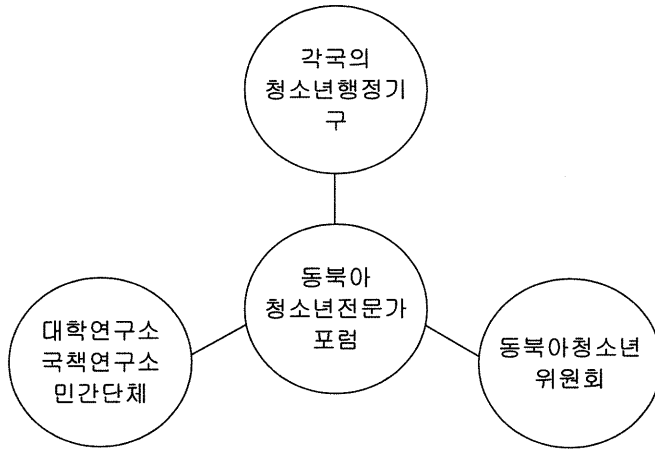
동북아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연구기관교류협의회나 대학교류협의회를 연구자나 교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겠지만,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동북아 3국을 순환하면서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개발과 관련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바로 ‘관련학회교류협의회’이다.

(1) 청소년 관련 학회 협의회 구성

먼저,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관련 학회 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각국에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동북아 3국간 교류하고 있는 학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를 개별 학회의 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련학회 교류협의회’를 조직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한·중·일 청소년전문가포럼 개최

‘관련학회 및 교류협의회’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3국 공동의 포럼 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적극 지원한다. 3국간 청소년 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적인 청소년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원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세미나의 개최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림 IV-2]와 같이 각 분야의 지원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IV-2] 동북아 청소년전문가포럼 구성 모형

4. 민간 청소년교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1) 동북아 청소년교류 민간협의체 설립

현재 산발적이고 비전문적인 NGO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묶어주고 조정하며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지난 2003년 통과한 청소년활동진흥법(제58조)내용에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치를 계기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와 같은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청소년관련 NGO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청소년관련 NGO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국제교류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설립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국제교류 사업을 추

진하고 있지만 매우 산발적이며 협력관계가 부족하다. 이들 기관들에서 국제교류 사업은 국내 각종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에 비해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여타 업무의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고도의 숙련과 경험을 요하는 분야이다. 외국과의 협약체결이나 의견조율에 있어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정치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별 국가의 특징과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추진할 경우 자칫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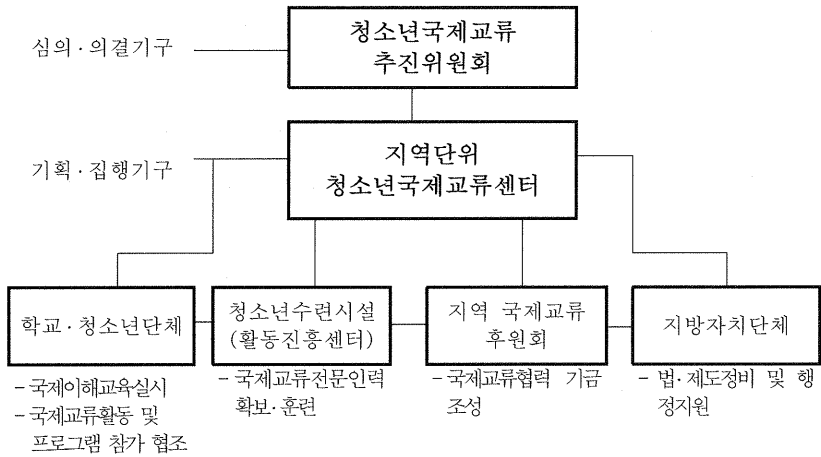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설치운영이 시급하다. 이 기구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한중일 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외국과의 청소년교류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역부족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사업 초기에 외국기관과의 접근 방법이나 대화방법 등이 매우 미숙하며, 숙련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청소년교류센터에서 이들 우리나라 청소년NGO단체들이 교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이를 지원하고 초기단계에는 직접 추진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NGO에 이관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가 NGO들의 자발적인 청소년교류 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세적인 운영과 국제교류 사업의 경험이 미비한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NGO들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보여 진다.

국제청소년교류센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운영 중인 국제청소년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제청소년센터의 본래 설립취지가 우리나라

라 청소년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부간 국제교류 사업을 점차 NGO에게 이관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V-3] 민간단체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모형

1990년대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교류는 정부와 기업, 청소년단체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 IV-3]에서 도식한 바와 같이 민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모형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청소년국제교류전문 인력 확보, 법·제도적 정비, 국제이해센터 건립과 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지속된다면 이를 기폭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5.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협력 모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분권화, 즉 기능 및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와 청소년국제교류의 현황분석과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제교류 사업 참여집단은 여전히 초·중학생 혹은 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집단의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청소년 및 농어촌 지역의 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근로청소년 및 직업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직업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내용으로는 견학·시찰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 스포츠·캠프나 문화활동, 작품교류 활동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여 활동내용이 직접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교류사업 실시 횟수는 연 1회가 보편적이다.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운영의 조직성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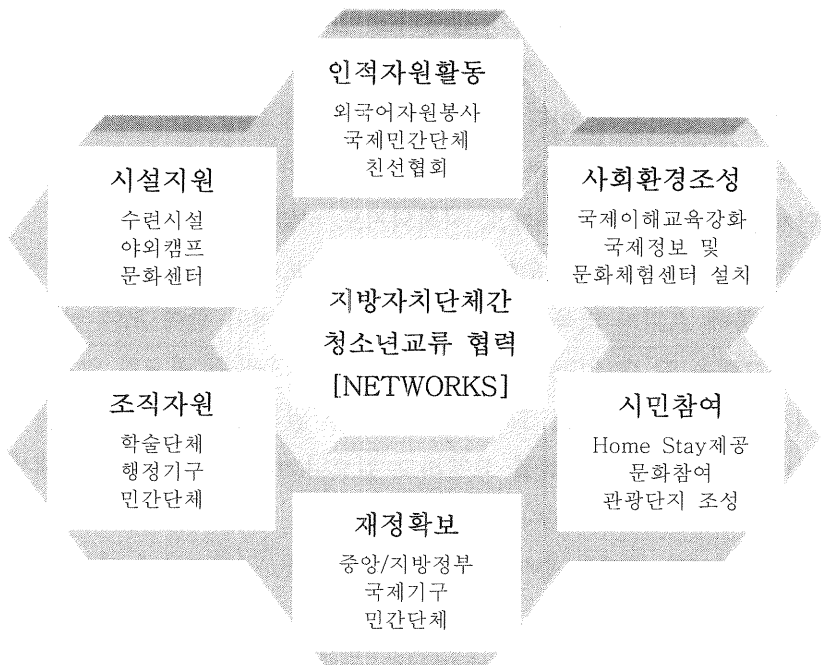
체계성, 지속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추진상의 애로점으로는 재정부담, 언어문제, 인력 등 지원체제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이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청소년국제교류는 단순한 견학, 방문활동보다 현지인과의 인적 접촉을 통해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모여 공동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실시되는 정부간 교류프로그램이나 일본의 방한수학여행단은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국내에서도 세계화 추세로 외국인과의 교류, 국제교류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 인이 외국방문이라는 방식 외에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제교류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제교류를 확산시키고 국내 청소년과 외국인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 거점시설을 시범·지정하여 운영한다.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외국어, 외국음식, 외국문화 이해와 외국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프로그램 기획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다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1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대중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익성이 낮아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련시설에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해지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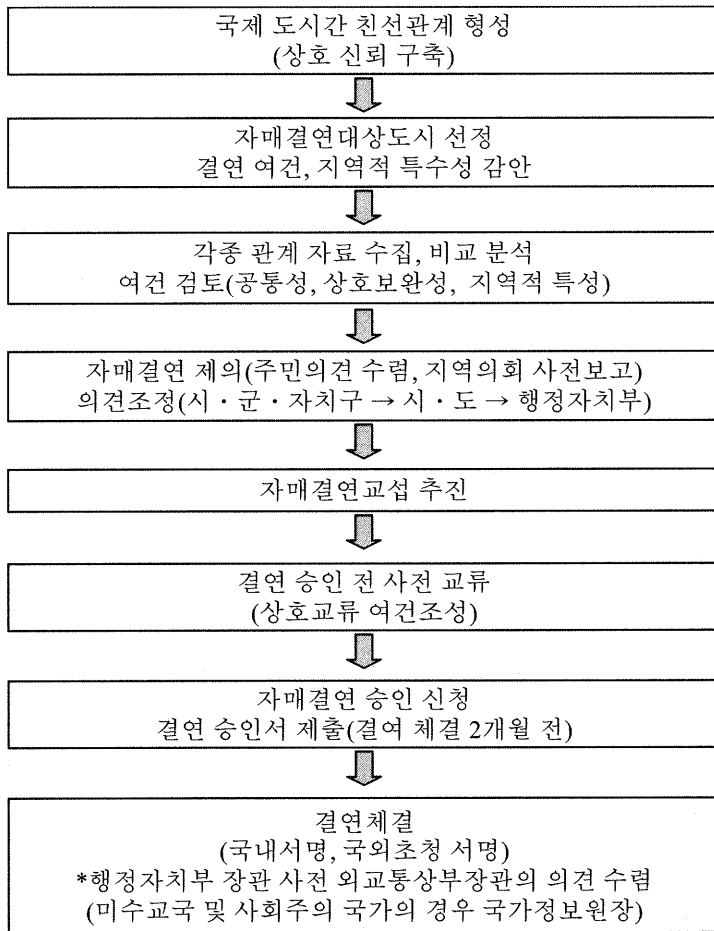


[그림 IV-4]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협력 모형

따라서 각 국의 지방정부가 청소년국제교류 시범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와 프로그램 인력(프로그램 진행시 요청되는 비상근 외국어 인력)을 지원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교류협력의 다면적인 접근모형을 [그림 IV-4]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절한 관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러한 관심과 관여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통제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위주의 관여는 시행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만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IV-5]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추진절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림 IV-5]에서 도식된 바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교섭을 추진하기 전에 상급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결연 체결 전에 행정자치부에 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자매결연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매결연 승인시 외교통상부장관(미수교국 및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교류가 높은 외부효과를 지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 주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큰 고객집단이 존재하거나 단기간에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미미한 상태이다.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방향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의 결여로 기대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해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주요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도자들이 국제교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지니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교류는 그 효과

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확한 수혜자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고객집단이 큰 정책적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분권화시대의 중심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와 청소년국제교류의 현황분석과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
단위사업 분석

V.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 단위사업 분석

1. 외국의 청소년국제교류협력 모델 유형 분석

1) 유럽연합(EU)의 국가주도 모델

(1) 프로그램 내용 및 특징

현재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럽 연합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공동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국가간(동유럽 포함) 및 유럽 이외지역과의 국가차원의 협약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프로그램이다. 두 유형의 사업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기도 하고 전혀 별개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모두가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서 관여하는 관계로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간에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들 간의 사안별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여기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철경·오해섭, 2004).

①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소년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

가. 학교청소년 교류프로그램(SOKRATES)

나. 학교 및 학교 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교류 프로그램(LEONARDO)

다. 일반 청소년들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유럽 청소년Ⅲ)

② 개별 국가간 또는 개별 지방단체 차원의 교류사업

가.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 체결 및 협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사업

나. 특히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보다 활성화된 사업 영역

다. 같은 사업이라도 사업의 영역 및 내용 그리고 방법 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동서 각국의 사정에 따른 교류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순수한 의미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점과 제약을 안고 있음

한편, 유럽형 청소년 교류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지역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기초로서 청소년 교류사업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고, 이에 각 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시 내용, 방법 등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쌍방향 복지 및 투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기획과 운영은 유럽연합의 협의체가 주관하고, 각 국의 관할 하에 관련 청소년교류정책담당 부처 및 행정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위 단위인 각 급 학교 및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청소년복지 단체로까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2) 추진배경 및 시사점

유럽간 청소년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영역은 직업기술교류 및 직업기술교육 사업의 영역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학교청소년 대상의 교류사업

차원으로서가 아닌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층인 직업청소년 및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투자로 시작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유럽지역간 국제교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의 청소년교류는 오래 전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도 촉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지역의 사회 안정화 전략과도 크게 부합된다. 즉 국가와 국가간 민족과 민족간 아니면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깊은 유럽 대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웃 사회 및 문화와의 교제를 통하여 각 국의 민족과 국민과 친해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상호 문화교류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문화교류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하는 국제산업사회의 성숙과 유럽 대륙간을 오고 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교류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는 미래 유럽지역의 화해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 특히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과정은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유럽 통합의 핵심전략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막대한 예산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 교류사업을 국정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유럽지역의 통합기구로 자리를 잡은 유럽 연합(EU)에서 유럽지역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을 미래 유럽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여기고 있다.

둘째,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편으로는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연합 또는 아시아연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역화를 통하여 지역블록화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블록화를 경계하며 동시에 유럽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의 개별국가간의 교류 사업일 경우에도 국가간 협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도시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별 또는 사업시행의 단위별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유럽지역의 사례에서와 같이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의 추진 방법은, 먼저 동북아 청소년교류센터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각 국가는 여기에서 제안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상호협의 절차를 거친다. 프로그램에 참가가 결정되면 각 국은 예산 지원에서부터 행정적 협조까지 할당된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동북아의 공동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주도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들은 주로 자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 북미국가의 비영리단체 주도 모델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경우와는 내용, 방법, 범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북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국가에서 또는 국가 연합 차원에서 주도하고 개별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 유럽형과 달리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NGO)의 속성을 지닌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사업 유형의 차이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이 서로 상이한 국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역시 양진영간의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차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정책 면에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은 공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 방법, 목표 면에서는 매우 판이하다. 즉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의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및 개인 자유 경쟁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요소와 절충된 소위 사회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업 중심주의로 일면 대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업 중심주의로 일면 대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역시 유럽 지역처럼 국가 또는 연합국가가 주도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 지역이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계속 지원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 이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는 처음부터 이에 개입하는 정책을 가

지고 있는데, 즉 국민 세금을 잘 버는 계층과 못 버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어 들여서 이 총액을 국가와 정부가 정하는 정의와 평등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재분배 환원시킨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즉 북미형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차원의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며(예: 미국 IAP-66, J-1 비자 문제 협조), 기업과 사업가들 그리고 출연이 가능한 독지가들에게 주로 세금 정산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적 사회 환원의 규정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북미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목적은 첫째,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세계 국가 질서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 지구촌의 강자로 떠오른 북미 문화권에서 세계의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이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주변문화 대신 중심으로 떠오르는 북미 문화를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실제로 제3세계 문화권으로부터 항상 “문화적 식민주의 논쟁”에 휘말리는 목적 영역으로 지적되지만, 이러한 목적 영역은 한 번도 포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자신들을 지구촌의 중심무대로 즉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을 노리는 것을 극히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3세계와의 논쟁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제3세계에서 비토를 내는 예민한 사안들에 대하여 이들은 문제를 가능한 한 지상에 노출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정책 역시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청소년교류 사업을 통하여 인류 이해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에는 누구 하나를 제외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3세계의 문화권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미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목적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날로 발전하는 추세로 평가할 수 있다.

(3) 『캐나다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30년 전부터 외국의 청소년들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국제적 교육의 기회와 일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즉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고 지역사회와 국제 발전의 이슈를 개척하고 실제적 현장 경험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매년 약 20여 개국 출신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캐나다 세계 청소년』의 사명은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로의 파트너십 속에서 함께 일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의식, 세계 시민과 지역사회 개입 그리고 세계 이해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비영리 단체의 사업이다. 이는 캐나다의 국제 개발 에이전시, 다른 정부와 비정부단체(NGO) 설립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 기부자들에 의해 지원된다.

1971년에 설립된 사업 기구인 『캐나다 세계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혁신적 국제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주도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60개국 출신 2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캐나다 세계 청소년』이 제공하는 삶

의 혁신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참가 지원 자격은 30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가능 하지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의 참가 자격은 17~20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①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Youth Exchange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6~7개월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삶과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반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반은 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국가 EH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낸다.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국가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작업 현장의 경험을 획득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발달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② 중부 유럽 및 동유럽 프로그램(Central and Eastern Europe Programs)

이 프로그램 역시 6~7개월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반을 캐나다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보내고, 프로그램의 반은 중부 유럽 또는 동유럽에서 보낸다. 단일한 경제-정치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은 민주화, 환경, 시민의식, 시장 경제 그리고 소규모 사업 개발 같은 공통 이슈에 관여하게 된다.

③ 소비자 프로그램(Customized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환경, 지역사회 개발, 기업주 훈련 또는 특별 그룹(여성, 원주민 등)을 위한 이슈들에 근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형태에서건 기한에서건 매우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참가자들이 홈스테이 형식으로 호스트 가정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신청할 수도 있다.

④ 작업 파트너 프로그램(Work Partner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에게 해외에서 실제 작업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3-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파견되어 작업 경험을 하게 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로 거주하면서 호스트 가정과 함께 살고 건강관리, 환경, 새로운 정보 기술공학 그리고 지역 발전 같은 분야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갖고 작업한다.

⑤ 연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Joint Initiatives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 청소년들과 단기적으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그룹들에 의해 주도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국 가정 체험, 그 나라 언어의 교육 훈련, 관광 그리고 학교 외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3) 아세안(ASEAN) 국가의 문화·지역 네트워크 모델

(1) 아세안 사무국(The ASEAN Secretariat)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방콕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비는 700만 달러(USD)로 10개국이 공동 분담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ASEAN의 조직은 ASEAN 국가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타분야 각료회담이 매년 이루어지며, 각료회담을 지원하는 29개의 상임공무원위원회와 122개의 기술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상임공무원위원회 중 사회개발위원회(COSD) 하위의 분과위원회 중 아세안 청소년분과위원회(ASEAN Sub-Committee on Youth: ASY)와 아세안 교육분과위원회(ASEAN Sub-Committee on Education: ASCOE)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보위원회(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가 문화정보관련 청소년사업을 주관한다.

ASEAN은 여러 특수부서가 있으며 다양한 현장분야와의 국가적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협력하고 있는 현장분야로는 아시아 대학 네트워크(AUN), 아세안 농촌청소년 개발센터, 아세안 관광정보센터, 아세안 에너지 센터 등이 있다.

아세안의 주요목적은 정책개발, 아세안 의식 증진 시민교육, 능력형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아세안 고위 공무원회의, 아세안 Youth Dialogue Meeting(2004년 의제는 창업문제), 아세안-중국 장관회의, Youth Exchange(매년 매국가 3명씩 총 30명 초청), Malaysia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예정사업: 비용은 10개국 분담) 등이 있다.

①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와 국가별 조력사업

제 2차 아세안청소년장관회의의 결과로 각 나라별로 적용계획을 세웠고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인도네시아), 사회적 시민적 책임의식(라오스), 리더십 교육(말레이시아), 아세안 시상식(필리핀), 과학과 기술(필리핀), 지속적 개발과 농촌청소년(태국), 학교 밖 청소년의 기술훈련(베트남), 이중 마지막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안들이 아세안 하위교육위원회와 연계하는 협력적 활동으로 결정되었다.

②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의 주요 관심 분야

학교밖 청소년의 훈련, 즉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간 청소년들의 실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한 아세안 직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일본-아세안 교환사업(JAEP)의 기금으로 1998년에 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로 설립된 아세안 기술망(ASEAN SKILLSNET)은 이후 2000년에 Youth@ASEAN homepage(www.aseanyouth.org) 안으로 통합·발전되었다. 이

웹페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아세안협력에 대한 지역적 개관을 보여주며,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 청소년상 시상(ASEAN Youth Award)은 1999년부터 매년 “최고의 청소년봉사활동”의 주제아래 아세안 회원국에서 9명의 청소년에게 수상한다. 2001년에는 청소년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10차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와 연계하여 수상식을 가졌다. 이제까지 10차의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치러졌다. 2003년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11차 회의부터는 아세안 국가가 공동 부담하여 이 행사를 치를 것인데, 아세안 청소년 고위공직자회의(SOMY)는 아세안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수상식이 아세안 청소년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년 이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은 2002년에 ‘도시청소년사업Ⅱ’ 세미나를 청소년비행 줄이기의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었다. 또한 아세안+3 리더십행정 프로그램을 “청소년기관발전을 위한 정보기술의 물결 타기”의 주제로 개최했다. 같은 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지역적 훈련워크숍을 열어 행동계획과 훈련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아세안 교육분과위원회(ASCOE)주요관심분야

SEAMEO와 연계하여 기본교육과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질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중등교육학교에 교과과정과 학생교환프로그램 안에서 아세안 연구(ASEAN Studies)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내 아세안인식(ASEAN Awareness)을 높여왔다. 아세안 연구과정의 초등,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위해 아세안 연구자료집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이 주도해서 아시아 교과목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다.

④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ACOI) 주요사업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와 아세안문화기금(ACF)과 연계하여 상호 이해, 회원국들 간의 연대, People to People 상호작용과 접촉, 정보 교환과 기술개발, 문화공연, 축제행사와 전시회 등을 증진시키는 사업들을 해왔으며,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아세안 인식 증진(Promoting ASEAN Awareness): 지역적 정체성과 협동정신을 가지는 것을 돕고자하는 아세안프로그램의 지역적 인식 필요성에서 나왔다. 아세안활동증진을 통해 지역 내 자신감의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정보통신부장관들과 문화정보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 프로그램, 구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하였다: 하노이 행동계획(HPA) 실행, 아세안 프로그램과 문제들의 공적 인식, 아세안 경제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 아세안 위성 채널, 매스미디어 네트워크와 연결, 문화적 공연과 전시, 청소년 캠프와 교환, 멀티미디어 훈련, 문화적 유산.
- * 아세안 청소년캠프: 1997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2004년 12월에 캄보디아에서 6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50명의 청소년들이 12일간 참여하여 서로간의 경험공유, 자기국가의 문화적 측면들을 공연, 참가자들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다지며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 People to People 교환프로그램: 일반대중차원의 아세안 문화간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 국가정보기관들이 국가적 아세안 퀴즈경쟁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이 참여대상이며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경쟁하는 퀴즈이므로 학생들이 자연히 아세안 관련 웹사이트 자주 접속하며 다른 아세안관련 출판

자료를 접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퀴즈에 나갈 준비를 한다. 2002년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개인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두 필리핀 고등학생에게 각각 500달러(USD)와 400달러(USD)가 주어졌고 필리핀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아세안 전문가라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 외무부 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것을 격려를 받았다(www.pia.gov.ph/philinfo/).

⑤ 아세안 문화기금(ASEAN Cultural Fund: ACF)

1978년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이 아세안의 문화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위해 설립하였다. 일본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로 문화와 정보 사업을 지원한다. 2,000만불(USD)로 시작된 기금이 2004년 현재 4,000만불(USD) 조성되었고 이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 아세안 기금(The ASEAN Foundation)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정부국간의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면 아세안 기금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아세안의 사적영역을 대변하는 통로가 된다.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기금은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에 있어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www.aseanfoundation.org/activities.php). 아세안 기금은 1997년 아세안 10개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창설하였다. 아세안국가에서 4백20만 달러(USD)이상을 모금했고, 1999년에 일본에서 기금 지원(2천만 달러USD), 중국, 한국이 각각 2십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 이 후 한국은 아세안과 최근에 그 관계를 확대해왔으나 아세안·한국 특별기금으로 인력자원개발, 정보기술, 보건 환경분야를 위해 2백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ASEAN Foundation, 2003) 일본·한국·중국에서 송금된 기금은 총 2천 4백만 달러로 이중 2천 2백만 달러가 사업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천만 달러가 일본정부

가 주도한 단기 사업들에 사용되어왔다. 많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기금을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45%의 기부금이 사용되어 현재의 사용 가능한 기금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맨 처음 확보된 기금의 이자로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최근 아세안 기금에 부가적 수입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대학, 개인회사, 정부기관, 민간기관, 관리, ICT 의사소통이나 언어분야의 일반 공동체에 단기 코스들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지역의 대학이나 훈련 센터와 연계하여 훈련과정이 열린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감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얻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같이 사업후원을 통한 모금, 기업후원을 통한 자체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재정부족으로 대기업의 후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는 1992년 4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과로 고등교육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위해 아세안 대학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199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내 교수·학자·과학자간의 협력증진, 지역 내 학문적·전문적 인적자원개발, 아세안 학문적 공동체내의 정보보급 증진, 회원들 간의 지역간 정체성과 아세안인임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www.aun.chula.ac.th/detail.htm).

아세안 국가의 대학교류 네트워크의 사무국은 태국의 국립대학인 출라롱콘(Chulalongkorn Univers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조직은 이사진과, 사무국, 참여대학이 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

세안 10개국의 17개 대학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전대학이 AUN과 교류하고 있다.

사무국의 운영은 태국정부가 지원하고 운영비 중 사업비는 대학별로 분담해서 충당한다. AUN의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아세안 국가 내의 교류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아세안과 역외국가와의 교류사업이다.

① 아세안 국가 내의 교류사업: AUN 질적 보증사업,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학생·교수 교환 프로그램, 정보 네트워킹, 협력적 연구, 아세안 행정개발 프로그램, 아세안 대학원 경영·경제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가. AUN질적 보증사업(AUN Quality Assurance)

AUN의 가장 우선적 사업으로써 2000년에 아세안대학동맹이 태국방콕에서 첫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대학내의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각 대학에서 임명한 질관리담당관(Chief Quality Officer)이 모여 2004년까지 6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공통된 기준체계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벤치마킹법으로 대학간 좋은 사례를 나누고 적용하는 하며 바람직한 교수 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한 실제적 관찰을 하고 아세안대학들이 적용하도록 돕는다. 결국 아세안 국가내의 대학교육의 질의 수준을 관리하여 고등교육체계 내 조화를 이루며, 아세안 대학간 학점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2004). 일례로 현재 버마와 싱가포르를 학점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장차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ASEAN Studies Program)

이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연대와 정체성 강화, 아세안의식 고양을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AUN 회원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실행할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위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원수준에서의 조사연구와 워크숍을 해왔으며 Malaya 대학(말레이시아)이 아세안연구 프로그램의 AUN 석사과정을 2003년 말에 시작하기로 하였고, 필요한 선수과정으로 6개의 필수과정 강의요강(ASEAN Studies Programme Syllabi)이 개발되었다. 아세안연구 6개 과정의 요강은 아세안의 경제협력, 아세안의 외부관계, 아세안의 기능적 협력·조사코스, 아세안 제도적 구조와 의사결정, 아세안내의 정치적 안전보장 협력, 동남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적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요강은 아세안기금의 후원으로 CD-Rom과 책으로 발간·배포되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다. 학생·교수 교환 프로그램에서 단기교류활동

AUN교육포럼, 아세안 문화포럼, Young Speaker Forum 등이 있고,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주로 대학생이 주 대상으로서 현재 태국에 2~30명의 아세안 국가 학생이 가서 공부하고 있다.

첫째, AUN 교육 포럼(AUN Educational Forum)은 1998년에 태국에서 시작되어 매년 이루지는 2주간의 Work camp 프로그램이다. 회원대학별로 교수 1명과 대학교 2~3학년 학생 1~3명씩 50여 명이 참여한다. 정치, 경제, 경영 등의 전공학생이 참여하며 포럼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럼토픽에 대한 3,000자의 에세이를 제출해야하며 교수진은 4,0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2004년에는 미얀마에서 '식식정보화 사회의 아세안: 아세안연구 학습사회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6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나라별로 주제를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며 경비 중 항공료는 학생부담이며 나머지 비용은 주관대학이 부담한다(윤철경, 2004).

둘째, 아세안 청소년 문화포럼(ASEAN Youth Cultural Forum)에는 각 대학에서 5명의 미술·음악전공 학생들과 교수 1명이 초청

되며, 3가지 주요활동에 참여한다. 음악, 노래와 춤에 관한 강의, 워크숍과 각국 대학의 문화공연에 참여한다. 참가학생은 60불의 가입비를 내며 항공료는 학생의 소속대학이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행사 주관대학이 부담한다. 200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고, 2004년에는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대학에서 두 번째 아세안 문화포럼을 주관한다. 이 포럼은 아세안 청소년들에게 상호문화적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합을 추구하고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포럼은 아세안 각국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2004).

셋째, Young Speaker Forum은 아세안 교육포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어른들은 아세안 청소년들의 성숙한 생각들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동남아지역을 위한 미래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라. 협력적 연구(Collaborative Research)

아세안 기금의 지원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며,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전보장문제(Economic Security Issues)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관련된 주제를 중점으로 연구조사를 한다. 먼저, 경제안전문제에 관한 연구는 아세안 경제·경영대학원 프로그램 네트워크(AGBEP Network)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아세안 5국내의 상호기금의 개발과 수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Gadjah Mada대학에 있다. 둘째로, 정보기술관련 조사는 필리핀의 De La

Salle대학의 협력 하에 ‘아세안 5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기술훈련’의 제목으로 이루어 졌다. 이 두 연구는 2003년 8월까지 연구를 마감하고 10월에 발표세미나를 가졌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 ② 아세안과 역외국가와의 교류사업: 아세안-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중국, 아세안-유럽연합, 아세안-인도, 아세안-러시아 등.
가. 아세안-한국과의 교류

1991년 아세안과 정식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이 되었다. 아세안과 한국간의 관광, 과학, 기술발전과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왔고, 인력자원개발의 틀 안에서 한국은 아세안 청소년들과 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연구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아세안-한국 학문교류프로그램, 아세안 박사후(post doctoral) 과정프로그램이 있다. 한 예로써, 한국의 대전대학에도 아세안 국가의 학생의 와서 수학하고 있다. 2002년 아세안·대전대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의 결과로 10명의 아세안 학생이 수학을 마치고 2003년 6월에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2003년 7월부터 10명에서 17명으로 장학생의 수를 늘렸다. 2003년의 경우 10개 아세안 국가에서 95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며 이중 17명에게 한국으로 파견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전대학의 경우 학비, 숙박비, 왕복티켓과 한달 생활비 500달러를 1-2학기동안 17명의 아세안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처럼 대부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초청국의 대학이 부담하고 기타비용은 초청국의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구조이다. 그 외의 한국과의 학문적 교류는 AUN사무국과 한국동남아학회와의 교류가 2002년에 시작되어 워크숍, 협의, 공동연구, 우정교환, 조사와 원탁회의의 5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냉전 후 세계화시대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과 정체성 세우기’의 주제로 이루어진 협의에는 아세안과 한국의 학자들이 20편의 논문을 제출했다. 공동연구와 우정교환프로

그럼은 2004년 진행되었으며 6명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10명의 연구자가 우정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해왔다. 2004년 6월이 연구마감 시점이며 연구와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와 원탁회의는 2004년 1월에 시작되어 한국학과 아세안연구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 전문가들이 각기 아세안나라내의 한국 연구에 대한 조사와 반대로 한국내의 아세안연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6월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워크숍을 통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 조사결과는 아세안과 한국에서의 서로에 대한 현재의 연구 상태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서로간의 학문적 협력의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4, www.aun.chula.ac.th/Aunactivity.htm).

나. 아세안-중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학문적 협력과 교환프로그램은 2001년에 주요한 4개 활동, 즉 총장회담, 조사와 원탁회의, 협력연구, 교수학자프로그램을 주요골자로 시작되었다. 총장회담은 2002년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의 아세안나라와 아세안연구(ASEAN Studies)에 대한 연구 상황과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또한 향후 교류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AUN사무국과 중국의 북경외국연구대학(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BFSU)이 2004년 베이징에서의 조사 원탁회의를 준비해왔으며 이 회의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의 학자들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광시 대학(Guangxi University)은 2003년 11월에 경영대학에서 ‘아세안 중국의 경제 경영 고등 교육 협력’의 주제아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약 50명의 아세안 학자들과 80명의 중국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포럼은 아세안국가와 중국 대학들 간의 고등 교육에 대한 학문적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증진·교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었다.

데, 첫째, 아세안 중국자유무역지역을 주도하면서 고등교육기관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 또한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 협력은 인적자원 개발영역에 초점을 두고 확대될 것이다. 둘째, 아세안과 중국 간의 학문적 협력은 장기간을 통해 한단계씩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쪽간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와 프로그램개발에 동의한 상태이다.

다. 아세안-일본과의 교류

일본경제조직연합에 의해 설립된 Keizai Koho센터가 1998-2000년까지 3차례 AUN 대학관계자와 학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10일간의 관광 및 교육적 방문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AUN 동남아시아 공학교육개발네트워크(AUN/SEED-NET: AUN/Southeast Asian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를 설립하여 아세안과 일본의 대학간의 공학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세안 나라들 간의 공학교육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아세안에서 선별된 9개 대학들과 일본의 11개 대학이 회원이며 이 네트워크는 연구사업 자금지원, 연구 장비 제공, 연구결과확산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년 2회의 정기간행물 출간, 웹사이트 설립, 국제학술협회의 참여를 위한 기금지원, 대학원석사학위 프로그램, 단기 훈련코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관(JICA)을 통하여 주로 일본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아세안기금이 부분적 재정지원을 한다. AUN/SEED Net의 특별 프로젝트로 2000년 회원대학들의 총장과 학장들의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받고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2001년에는 동대학에서 네트워크의 개회식을 가졌다. 2002년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국립대에서 ‘공학교육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사용’을 주제로 첫 IT세미나를 개최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www.seed-net.org).

라. 아세안-유럽연합

1997년 양 연합간의 원탁회의 이후 상호간의 학문적 공동체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에 프로그램관리 사무소가 있다. 크게 파트너십 사업과 네트워크 주도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파트너십 사업을 위해 공동적용연구, 인적자원개발, 교과과정개발의 3 가지 사업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네트워크 주도사업을 위해 2차례의 총장 협의와 4차례의 정기 원탁회의, AUN을 위한 기술원조가 계획되어 있다. 한 예로써, 최초 아세안 유럽연합 대학 네트워크 프로그램(AUNP) 원탁회의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주제로 2003년 방콕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두 지역 대학 간의 질적인 수준 보증을 위한 실제적 협력 노력으로써 아세안-유럽연합 정책입안자, 학자, 실천가 등 고등교육 질적 향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몇몇 국가의 사례와 나라들 간의 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2. 국내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 분석

1) 한중일 청소년교류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 정부는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2003-2007)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를 정책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부터 일본, 중국과의 정부간 청소년교류는 규모의 확대와 내용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는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서나, 파견·초청의 균형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반면, 청소년 단체의 교류 중 일본, 중국과의 교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청소년들의 교류 희망 국가가 유럽이나 북미 지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교류프로그램 시행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의 양적인 감소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의 일본, 중국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으로 것이다.

청소년 단체들의 한·일 교류는 양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의 친선 도모 수준의 교류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취약한 실정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자리 잡은 단체는 국제적인 연계망을 갖추고 있는 몇몇 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 해 볼 때 일본 다음 순으로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의 교류에 비해 극히 미미한 단계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등과 같은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단체에 의해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단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단체의 중국과의 교류는 일본과의 교류 보다 교류의 정기적, 지속성 면에서 훨씬 취약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교류가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전무가 경우가 많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본과 중국에 나가 직접적인 교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그에 못지않게 일본, 중국 청소년들을 국내로 유입하여 교류 하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교류(exchange)란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양방향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의 교류는 양방향성의 흐름이 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청소년의 국내 유입 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단체의 교류 확대와 질적으로 가치 있는 교류 시행을 위해서는 단체의 교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의 교류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봉사활동 이수 제도 형식과 같이 교류활동 시간에 대해 인정해 주는 교육체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청소년 단체간 교류는 정부간 교류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예산의 문제, 일본, 중국 교류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부재의 문제, 전문 인력의 문제, 실태 파악과 총괄체계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검토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시행 예산은 대부분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교류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주로 교류경험이 있는 단체에 정부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교류 단체의 확대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교류 목표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한·중·일 간 청소년교류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교류가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고 있을 뿐 전문화된 한·일 교류 프로그램, 전문화된 한·중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정부간 청소년국제 교류 사업은 전체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중국과의 청소년교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와 관련된 예산의 문제와 교류 실태 파악의 부재 등의 문제와 함께, 이외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교류 관련 전문 인력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류 사업 추진 시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뱅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단순히 일본어나 중국어의 언어 능력이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 교류 수행에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 교류가 단순한 외국 청소년과의 접촉을 넘어서 교류를 통한 지적, 신체적, 정신적 면에서의 균형 있는 변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언어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인력의 활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교류 청소년 전문가, 중국 교류 청소년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중국 교류와 관련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총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타 국가들에 비해 일본과 중국의 교류가 전체 청소년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이에 대한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류의 단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각 정부 기관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총괄 시스템의 부재가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총괄체계 부재의 기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모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교류 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현시점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교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추진 사례

다음의 내용은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산하 기관인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기관시찰 및 담당자 면담 후 수집한 자료를 번역한 내용이다. 일본 청소년교류협력의 특징은 관계기관 및 단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각 종 연구회 활동, 청소년 이문화 이해 및 청소년교육 지도자의 체험활동 위주의 상호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V-1〉 일본국립 청소년종합센터 2006년 사업가이드

기획 사업	청소년 대상 사업	청소년 마을가꾸기 자원봉사 워크숍 차세대를 짊어질 Youth Leader 학원(신규사업)
	청소년지도자 대상 사업	전국 청소년상담 연구집회 청소년 체험활동 전국포럼 전국 청소년 놀이공간 만들기 모임 청소년교육 지도자 전문연수
	자원봉사자 대상 사업	청소년교육 자원봉사 세미나 청소년교육 자원봉사 연수
연수 지원 사업	연수계획 작성 지원	정보제공(홈페이지, 팸플렛, 이용안내자료) 연수계획책정
	활동프로그램 제공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자원봉사 연수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
국제 교류 사업	기획사업	청소년국제교류 포럼(신규사업) 전국 청소년국제교류 연구회
	상호교류 사업	일한 고등학생 상호교류 해외 청소년교육 지도자 세미나(신규사업) 일독 근로 청년 교류 일독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일독 학생청년리더 교류
조사 연구 사업	기초적 조사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기초조사 국공립·민간 청소년 교육시설·단체 주취사업 등 조사 청소년 교육에 관한 법령·답신·통계 데이터 정보 수집 청소년 교육 관계 문헌·자료의 조사 수집
	전문적 조사연구	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측정방법 개발 연구
	사업성과 보급	연구개요 체험활동 관련 보고서 청소년 교육시설 관련 보고 기타 기획사업보고서 등

■ 청소년국제교류 포럼(신규사업)

국제교류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모여, 서로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포럼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제1회로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제교류”를 주제로 워크숍, 교류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2006년 8월 26일(토)~8월 27일(일)(1박 2일)
- 대 상 : 국제교류에 흥미·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 모집정원 : 50명

■ 전국 청소년국제교류 연구회(기획사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기관·단체의 담당자가 모여, 사업실시상의 과제 등을 주제로 연구협의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에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주제로 분과회를 설정하여 연구협의를 하였음.

- 기 간 : 2007년 2월 21일(수)~2월 22일(목)(1박 2일)
- 대 상 : 청소년교육시설, 청소년교육행정·청소년단체·학교 교육 행정 등의 국제교류 사업 담당자
- 모집정원 : 50명

■ 일한 고등학생 상호교류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과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고등학생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방문 및 교류회를 실시하고 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 파견기간 : 2006년 10월 하순(5일간)
- 대 상 :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 모집정원 : 25명

한편 9월 하순에는 한국 고등학생 25명을 맞이하여 오사카 고등학생과 교류하고, 교토 및 나라의 사적을 견학합니다.

■ 해외 청소년교육 지도자 세미나(신규사업)

국내외의 청소년교육 지도자가 청소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현황과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최신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합니다.

2007년에는 제1회로 환태평양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방문국가는 8월경에 결정됩니다)

- 파견기간 : 2007년 1월 중순(약2주간)

- 대 상 : 청소년교육시설 직원, 청소년교육행정 담당자, 청소년단체 지도자, 학교교육 관계자 등

- 모집정원: 약간 명

한편 11월 하순에는 방문예정 국가로부터 청소년교육 지도자를 맞이하여 연구협의를 하고 문화·역사 시설을 시찰합니다.

■ 일독 근로 청년교류

일독의 근로 청년이 상호이해와 교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양국에서의 기업체험, 청년들간의 의견교환, 홈스테이 체험 등을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베를린, 드레스덴을 방문하여 기업체험을 하고, 직업훈련센터를 시찰하였습니다.(문부과학성 수탁사업)

-파견기간 : 2006년 8월 1일(화)~8월 15일(화)(15일간)

-대 상 : 35세 이하의 근로 청년(복지관계, 일반사무직, 제조·가공업), 관계업종 전문학교 교원

-모집정원 : 19명

한편 11월에는 독일의 근로 청년 23명을 맞이하고, 파견 청년과의 교류회를 실시하고, 동경도, 기후현을 방문하여 기업체험을 하고 행정기관을 시찰합니다.

■ 일독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일독의 청소년교육 지도자가 '미디어 리터러시' 및 '살아가는 힘'을 연수주제로 행정기관, 관계단체·시설에서의 체험,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연구협의 등을 합니다.

작년에는 '유해정보', '살아가는 힘'을 연수주제로 베를린, 본, 드레스덴을 방문하였습니다.(문부과학성 수탁사업)

- 파견기간 : 2006년 10월 8일(일)~10월 22일(일)(15일간)

- 대 상 : 청소년교육시설 직원, 청소년교육행정 직원,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 모집정원 : 16명(8명*2그룹)

한편 5월에는 독일 청소년 교육지도자 18명을 맞이하고, 동경도, 카가와현, 야마구치현을 방문하여 행정설명과 관계시설을 시찰하고, 청소년 단체 등의 지도자와 의견을 교환합니다.

■ 일독 학생청년리더 교류

일독의 청소년단체 등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학생의 상호이해와 교류, 리더 연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양국에서의 활동체험, 홈스테이 체험, 학생청년 교류 등을 합니다.

작년에는 베를린, 포츠담을 방문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시설과 작센하우젠 박물관을 시찰하였습니다.(문부과학성 수탁사업)

파견기간 : 2006년 11월 28일(화)~12월 12일 (화)(15일간)

대 상 : 청소년단체 등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전문대생, 전문학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모집정원 : 19명

한편 9월에는 독일에서 학생청년리더 17명을 맞이하여, 파견예정인 학생 리더와 의견을 교환하고 일본의 청소년단체 등을 시찰합니다.

3)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

다음의 내용은 2005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가 주최한 ‘청소년국제교류 평가회(2005)’의 자료집에 청소년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대학생들의 제안서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정영덕	1. 청소년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 2.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국제청소년센터가 있는 것을 모르며,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3. 모집인원이 적으며, 자격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체험연수 대상자를 뽑는데 고등학생 졸업예정자 14명을 모집하거나 영어, 일어의 언어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4.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참가비조차도 부담이 된다.	1. 청소년국제교류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 청소년단체, 동아리 간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외국어 인력은행(외국어 전문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극대화를 추진한다)을 운영, 국제교류 지도자 워크숍개최 및 국제교류 시범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국내외 청소년단체 및 시설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가 필요하다. 3. 청소년국제교류를 위한 생활권의 국제교류 특성화 청소년시설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김현주	1.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교류, 청소년연수,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에서 총 81개국을 대상으로 10,766명이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보교류와 인적교류에 치우쳐 있으며 일시적인 문화교류에 그치고 있다. 2. 국제교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소수에게 국제교류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3. 국제교류를 담당할 다양한 추진체계가 이루어져있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교류 협력 담당 행정조직의 기능이 미약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행정조직상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교류사업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1. 상호방문에 수반되는 경제적 조건에 의한 참여기회의 형평성 결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 저하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교류의 역할 및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며, 세계시민교육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교류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문턱을 낮춰야한다. 또한 여러 국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제교류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기획하고 개최를 통해 학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성 배양을 모색해야한다. 3. 국제교류를 담당할 행정조직상 담당부서의 설립이 필요하고, 국제교류 전문인 양성에도 힘써야한다. 국제교류 사업은 특성상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것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최진화	1. 홍보의 문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매년 청소년국제교류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17개국에 청소년을 파견한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2. 참가선발기준의 문제: 국제교류 대상국들 중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다. 따라서 영어만 가지고는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참가후기의 문제: 국제교류 참가자들의 후기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1. 전국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공문과 광고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검색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띄워주는 등의 홍보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참가자 1인당 통역관 한명씩을 붙여주어 국제교류에 언어로 인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3. 파견국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국제교류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자료를 올려주어 다음해에 파견될 학생들에게 국제교류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김정현	1. 국제교류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일청소년문화교류대화방’을 볼 수 있었으나 다녀온 후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 연수수료증에 대한 문의만 있었다. 또한 선발되어 해외로 떠나게 되는 학생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보가 너무 늦고, 일정표 등도 너무 늦다는 반응이었다.	1. 국제교류를 하고 온 청소년들에게 다녀 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참가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다음에 참가할 청소년과의 교류는 보다 더 발전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한나영	1.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보교류와 인적교류에 치우쳐있고 일시적인 문화교류에 그치고 있다. 2. 빈곤가정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참여하기 어렵다. 3. 국제교류의 한정인원으로 인한 원하는 청소년전체가 참여할 수 없다. 참여기회가 적다. 4. 민간의 경우 개별적으로 상당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정부와의 협조가 어렵다. 5. 청소년국제교류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수가 적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인적자원이 빈약하다.	1. 경제적 조건에 의한 참여기회의 형평성 결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 저하는 극복되어야 한다. 2.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국제교류활동의 역할 및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3.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국제교류에 대한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갖도록 하고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4.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연수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5. 정부, 민간이 종합적으로 결집하여 협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김윤아	1. 현재 국제교류는 단순한 정보교류 정도로 프로그램이 끝나므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2. 청소년국제교류의 대상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들을 선발함에 있어 영어나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므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다. 4. 청소년국제교류 실무자들의 다수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5. 현재 국민들이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1. 청소년국제교류가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나라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나 지식위주가 아닌 문화적 체험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는 것을 부각시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2. 청소년담당 실무자의 교육이나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연수과정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과 다른 나라와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얻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개발해야 한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김보람	1. 국제교류 프로그램 홍보가 인터넷 게시물, 방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홍보를 접할 수 있는 학생은 소수이며 대다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있다. 2. 교류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하겠다.	1.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확실한 홍보를 통해 참여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2. 교류활동이 다분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과 연관 지어 자신의 희망분야가 발달된 곳으로 국제교류를 참여하고 그 나라의 직업훈련체험 등을 경험한다면 청소년의 참여와 열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자신의 꿈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김주	1.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한과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2.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주체가 청소년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남북청소년교류를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남북청소년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성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시민권을 신장하여 주어서 청소년들이 자생,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름 (소속)	문제점	개선되어야할 내용
이지희	1. 국제교류 참가자 선정의 문제: 연령과 언어 수준이 참가대상자 선정을 좌우하고 있어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참석하고 싶은 그 외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2. 국제교류의 목적이 문화교류와 국제경험이라고 하였으나 국가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6년부터 현재(2005년)까지 국가주최(자방자치 포함)의 교류국가는 가까운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며 그 외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로 편중되어 있다.	1. 국제교류에 참가동기와 열정,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의 여부가 참가자 선발기준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대학생에게 국제교류의 참여기회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2. 가령 국가를 선정할 때, 일본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가 '일본의 경제문화 발달에 따른 경제문화 체험 및 관찰하기 위함'이라는 뚜렷하고 세분화된 목적이 필요하다.

4) 청소년국제교류 영역별 개선방안

이 내용은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직접 지적한 국제교류사업의 현안문제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1) 문제점 및 개선사항

① 예산 및 참가비용

- 예산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인 항공료의 부담을 정부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항공사와 협력 하에 1년 단위로 체결을 맺고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 단돈 얼마라도 참가비용이 학생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참가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의 수준에 있다. 따라서 질 높은 프로그램에서는 적정선의 프로그램 참가비를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가비가 있는 프로그램에 더 좋은 학생들(열정적이고 관심 있는)이 몰릴 수 있다.
- 질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참가비가 많은 학생들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력서가 되기도 하고, 자기 돈을 들여야 본전생각이 나는 법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팀의 예산조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보조금 보다 각종 지원을 민간 기업에서 후원받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펀드레이저(fund-raiser)를 양성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보다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프로그램의 기획단, 준비위원회 등에서 TM 등의 마케팅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성공사례가 많다.

②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운영방식, 내용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교류에 너무 치우쳐있다. 만나고 명함 주고받고, 보여주고 보는 여행과 경험에서 아카데미한 내용과 주제로 세부적으로 파고들고 생각을 나누는 교류가 필요하다. 아카데미한 내용과 주제는 참가자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이 또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잘 되면 상관없다.
- 서로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짧은 시간 내에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목표(주제)를 향해 팀원들끼리

리 밤을 새면서 함께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때 소속팀원간의 친밀감이 극대화된다.

- 어떤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램은 특정 청소년들만 모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③ 홍보

- 특별한 관심이 아니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인맥(선후배, 친한 친구)에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사람만 하는 국제교류가 되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기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학교 인터넷게시판과 오프라인게시판을 통해 포스터를 올리고 있지만 특정학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홍보책자가 필요하다.
- 아직까지 일반화단계의 국제교류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

④ 사전교육

- 기참가자들의 참가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자료로 남기고 이것을 사전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참가보고서를 쓸 때, 다음 참가할 후배들을 배려해서 기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해와라”, “~준비해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직접 “함께 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오리엔테이션 1회를 사전교육의 전부로 대신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기참가자들의 홍보영상을 보고 가지만 이것을 사전교육으로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함을 현지에서 느끼게 된다. 가서 놓치는 것이 많음에 준비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게 된다.

⑤ 사후관리

- 교류학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한 간단한 프로필과 사진을 담은 명함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함께 팀을 이뤄 교류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1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의 안타까움이 있다.
-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친밀감과 우정을 나누었느냐가 자발적인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제도적인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다.

(2)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 방향

-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체공모전을 들 수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이 직접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운영지원팀을 두어 팀별로 흩어졌다가 활동하고 들어와 각 팀 별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스케줄관리, 안전관리 등에 있어 중요하다.
- 인터내셔널 멘토 프로그램: 외국의 유명 기관을 방문하고, 영어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지원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아 마지막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등 전문분야에 내공을 쌓는데 도움을 얻게 되며 글로벌리더십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역사의식, 국가의식이 중요한 것 같은데 갈수록 이에 관한 프로그램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 단시일 내에 가시적 효과만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는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이기도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국제교류 단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다음의 내용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14개를 요약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효과 및 개선점을 평가한 내용에 대한 공모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		① 한중미래숲 녹색방중단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참가인원	100명					
활동기간	7일					
활동장소	북경-내몽고					
활동목표	한중 양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사막화 및 황사방지 조림행사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배양시키고 한중 양국의 상호교류와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진실된 우의를 다지게 한다.					
활동주제	PARTNERS FOR GREEN TOMORROW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30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참가자선발 -사전교육 1차 워크숍 -사전교육 2차 워크숍					
전개	-주제강연 2회: 환경보호 및 녹색아시아운동연구 토론, 지도자 토론회					
	-교류활동: 중국지질대학생, 북경임업대학생, 내몽고대학생들과 문화교류(상호교류)					
	-중국문화체험: 중국경극원 경극관람, 만리장성					
	-자원봉사활동1: 중국북경지역 북경임업대학생들과 식수활동					
	-자원봉사활동2: 중국내몽고 사막화지역에 내몽고대학생들과 식수활동					
정리	-환송회					
정리	1. 결과보고 발표회 2. 행사참가자 사후관리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한 · 중 문화청소년미래숲 방중행사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전문가 집단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2. 민간단체가 국가와 민간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민간대사의 역할수행 3. 미래숲의 상징인 나무심기를 통해 양국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4. 청소년들의 자율적 기획과 주체적인 진행을 통한 협동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제공 5. 모든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자극하고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음	1. 중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에 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국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을 할 소지가 있음 2. 나무심기 및 숲 조성 활동에 관한 사전교육과 실습이 다소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보완 노력이 요구됨 3. 지나친 보여주기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음. 따라서 내용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식전행사 및 기념촬영 등) 4. 대표와 팀장을 비롯하여 소수 몇 명이 너무 과중한 역할 담당하고 있음. 참가한 VIP 모두에게 적당한 역할 분담이 요구됨 5. 청소년들의 감성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구회외침과 이벤트 등에 관한 검토요망

* 평가자: 오해섭(2006년 제5회 참가자, 한국청소년개발원)

프로그램	② UNESCO 한국위원회 국제청년캠프(IYC)					
참가대상	만 18~27세의 청년 및 대학(원)생 -국제이해, 환경, 생태, 인권,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소유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참가인원	총 105명(한국참가자 35명/외국참가자 70명)					
활동기간	11일					
활동장소	유네스코 평화센터(경기도 이천)와 한국 전지역 12개 현장학습지					
활동목표	11일간의 워크숍, 현장학습, 공동작업,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하여 자기발전, 문화교류, 지적자극, 체력단련의 기회를 경험하며, 함께 생활하고 일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회제공					
활동주제	청년의 도전, 사회의 변화(평화, 환경, 다문화사회, 청소년의 소외, 생태마을, 지역공동체, 생태와 습지 보전, 문화다양성, 문화유산 등)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25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참가자 선발 -모든 참가자의 주체적인 참여 및 기획 (현지답사, 문화교류 준비,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자료제작 등) -한국참가자 예비캠프					
전개 (활동 시)	-워크숍, 문화 교류, 공동 작업 -현장학습 · 주제: 평화, 환경(경기도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와 협력) · 주제: 생태마을, 지역공동체(경기도 진중리 생태마을과 협력) · 주제: 다문화사회(서울 재한몽골학교,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와 협력) · 주제: 청소년 소외(대전 청소년쉼터·대전 보건대, 품 청소년문화공동체와 협력) · 주제: 생태, 습지 보전(경남 우포생태학습원과 협력) · 주제: 문화다양성(충북 자유학교, 통영 곤리분교와 협력) · 주제: 문화유산(문화 마을 들소리, 제주 성읍민속마을과 협력) · 주제: 생태마을(제주 예래환경연구회와 협력) -현장학습 리포트					
정리 (활동 후)	-평가회의 -한국 잔류 해외 참가자 관리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UNESCO 한국위원회 국제청년캠프(IYC)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창의력과 책임감, 리더십 함양에 도전할 수 있음. 2. 4박5일간의 현장 학습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의사결정과 모든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체성, 도전의식,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음. 3. ‘청년의 도전,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 아래 인권, 환경, 개발 등 많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 세계 각국 참가자들과 함께 생활·활동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음. 특히, 각 문화에 대해 발표 하는 시간을 통해 각국 고유문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5. 프로그램, 펠로우십, 킨 등 각 분과로 나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음.	1. 워크캠프와 세미나 형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2. 의사소통 수단이 영어라는 점에서 소외되는 참가자가 발생할 수 있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해외 참가자들을 배려해 주고, 그들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필요함.(한국 참가자들은 예비 캠프 과정이 있음) 2. 한국 주최로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 준비하고 있어,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 문화에 거부감을 가질 여지가 있음. 특히 한국의 권위적인 진행 방식과 빠듯한 일정 등에 해외 참가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음. 3. 일정 참가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서 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특히 킨 분과의 경우 캠프 식단을 관리해 줄 전문가를 별도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협력단체의 참여도, 협력도가 현장학습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협력 단체의 영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협력 수위를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음. 5. 각 나라마다 참가자의 수가 다양해, 한 문화권에서 소수가 참가한 경우 캠프 초기 적응을 힘들어하는 경우 있음. 캠프 초기 활동적이고 흥미로운 그룹 활동을 통해 참가자간 거리감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

* 평가자: 이상연(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프로그램	③ 한민족 청소년이 함께하는 역사대장정					
참가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러시아 사할린 동포청소년(만 13-18세)					
참가인원	한국청소년 20명, 사할린 동포청소년 20명, 관계자 10명(총 50명)					
활동기간	6일					
활동장소	서울, 파주, 천안(아산), 공주, 순천(지리산), 통영(거제도) 등					
활동목표	-8.15 광복을 맞이해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동포들의 손·자녀들에게 모국에서의 역사 체험을 통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모국 청소년과 러시아 사할린 동포 청소년이 역사탐방과 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의식을 공고히하고 한민족 청소년들이 협력하여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연대 기반을 마련한다.					
활동주제						
경비부담	KTF 전액지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특별강연1: 우리는 한민족 -특별강연2: 대한민국영토, 독도					
전 개 (활동 시)	-교류활동1: 우리는 하나(첫날 환영회) -역사탐방1: 한민족의 얼을 찾아서(국립중앙박물관) -역사탐방2: 선열들의 얼을 찾아서(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역사탐방3: 통일의 역사현장을 찾아서(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역사탐방4: 조국수호의 얼을 찾아서(독립기념관, 현충사) -역사탐방5: 백제의 얼을 찾아서(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역사탐방6: 민족지도자의 얼을 찾아서(마곡사) -역사탐방7: 5,000년 역사의 얼을 찾아서(서재필공원, 송광사, 고인돌공원) -역사탐방8: 조국수호의 얼을 찾아서(낙안읍성) -역사탐방9: 조국수호의 역사현장을 찾아서(한산대첩) -교류활동2: 모두가 하나 되어(마지막 날 환송회)					
정 리 (활동 후)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한민족 청소년이 함께하는 역사대장정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고려인-해외 이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주고, 이들에 대해 친밀감이 들 수 있도록 함. 2. 한반도의 여러 역사 유적을 다니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었음. 3. 서로 다른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4.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나서 상대국가(러시아)에 대한 관심 등이 상당히 증대됨. 5. 지나치게 힘든 일정을 겪으며 연대의식을 공고히 함. 6. 러시아 고려인들에게 모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음.	1.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고려인들이 오면 좀 더 체계적인 통역인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실력이 확실하지 않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인한 불편. 2. 고려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교육 없이 역사 유적만 방문함. 3. TV뉴스 촬영, 사진 촬영, 과도한 인터뷰 등 진정한 의미의 교류 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이 강했음(TV 뉴스 촬영을 위한 의도적 행동 등.) 4. 아무리 고려인이라도 이들은 외국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숙소 선택, 식단 등은 개선이 필요함. 5. 체계적이지 못한 프로그램.(활동 내용에 보면 참가하기로 되어있었던 독립기념관, 송광사, 성삼재, 제송당, 마곡사 등등은 아예 가보지도 못했으며,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음). 6. 서로의 문화에 대한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함(슬리퍼를 신고 방에 들어오고, 러시아 아이들이-동갑임에도-담배피고, 지나치게 개방된 사고방식 등은 한국인 참가자를 놀라게 만들 때가 있었음). 7. 이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 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단지 E-mail만 주고받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림).

* 평가자: 김수연(서울 대일의국어고등학교)

프로그램		④ 국제청소년광장						
참가대상	만 19세~24세 청소년 -영어구사 가능자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기 실시한 행사에 참가경험이 없는 자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참가인원	38개국 120명(한국인 50명/ 일본, 중국, 아시아유럽연합회원국 70명)							
활동기간	8일							
활동장소	서울, 경주							
활동목표								
활동주제	국경 없는 사회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10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사전교육							
전 개 (활동 시)	-전체회의 -모의법정 -주제관련 퍼포먼스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 -한국전통문화탐방 -서울, 경기, 일원 문화연수							
정 리 (활동 후)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국제청소년광장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 한 가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논의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모의법정, 전체회의, 강연, 인터네셔널 카페 등) -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주제(MDG)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음 - 학술적인 성격의 프로그램과 친목 도모형 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화 - 행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됨 -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청소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에 대해 논의 - 다양한 연령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동심과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소수의 학생들이 스태프로서 운영의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 절차상 미숙한 점이 많아 참가자들의 불만이 많았음 - 보여주기 위주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개회식, 폐회식, 서울 선언문) - 시간관계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았음(시간이 부족하여 끝까지 진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참가자들이 집합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프로그램 진행이 지체된 경우) - 프로그램 종료 후 행사를 총체적으로 자체 평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 - 참가자들의 지적 수준과 연령 및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들의 불만이 컸음(주제관련 퍼포먼스)

*평가자: 강진주(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램		⑤ 미래를 여는 아시아 청소년 캠프						
참가대상	만 17세-24세 청소년 -영어구사 가능자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전통예술/무용/패션/영상/의상디자인/메이크업 등 관련 특기자 가산점 부여							
	참가인원 300명(한국청소년 100명/ 17개국 아시아청소년 200명)							
	활동기간 21일							
	활동장소 서울 및 전국 일원							
활동목표		-아시아 청소년의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한 한국이해 제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소년의 공동협력과 우의증진						
활동주제		아시아의 재발견과 아시아 사랑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200,000원) -참가비는 외국인 청소년 민박가장 지원비로 사용되므로 민박제공 청소년은 참가비 환불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사전교육						
전 개 (활동 시)		-주제강연3회: 아시아 문화의 세계화/ 21세기 아시아 대중문화와 청소년 / IT가 가져다 줄 미래사회 모습 -한국체험: 한국어교육/ 한국첨단산업 시설견학(울산 현대자동차, 포항 포스코 등)/ 한국IT관련산업시찰(정통부 유비쿼터스관, 삼성전자 M-zone 등)/ 한국 공연문화, 전통문화, 대중문화 체험 -자원봉사활동: 국경 없는 마을 만들기(외국인 근로자를 위한/워크캠프를 통한/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아시아청소년의회 -아시아청소년축제 -수련활동 및 민박체험 -환송회						
정 리 (활동 후)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미래를 여는 아시아캠프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아시아의 엘리트 청소년들이 모여 우정을 나눔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미래지향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2. 아시아를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행사인 만큼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친구를 경험할 수 있음 3. 다양한 강연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고, 아시아의회를 통해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아시아청소년축제, 이주노동자마을 자원활동을 통해 일반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5. 한국참가자에게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외국 참가자에게는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하였음. 6. 주최/주관단체의 숙식, 경비보조 등의 배려로 참가자들이 기간 내내 큰 불편 없이 생활 수 있었음 -> 한국의 이미지 UP직결 (캠프참가자 만족도 80% 이상)	1. 행사규모에 비해 주관단체의 관리자가 적었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자원봉사 스태프에게 의존하는 경향 2. 한국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참가자끼리 공식모임을 2번 이상으로 늘려,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참가자내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3.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강(가령 이슬람, 이회수교수 등)의 사전교육 및 참가자를 위한 행동매뉴얼이 필요(가령 외국인 친구들과 식사 시 음식선택요령 등) 4. 우리나라 여름의 경우 동남아시아보다도 더 더운 것을 감안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일기예보 등의 변수 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음. 5. 한국 참가자 선발에 있어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다양한 홍보수단(신문, 인터넷, 포스터 등)을 통해 경쟁률을 높임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참가자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 6.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지역(DMZ, 판문점 등)을 방문해 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 역할을 모색할 프로그램 추가.

*평가자: 구자정(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프로그램		⑥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참가대상	만 15~24세 대한민국 청소년						
참가인원	총 25개 팀 140명 -조사연구단: 20개 팀 76명 (각 팀 4명 이내) -자원봉사단: 5개 팀 64명(각 팀 2~20명 이내)						
활동기간	조사연구단: 최대 14일, 자원봉사단: 10일~30일						
활동장소	아시아 8개국, 미주 7개국, 유럽 9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활동목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사연구 혹은 봉사하는 국제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 의식을 고양한다.						
활동주제	청소년분야/한민족분야/기타일반사회분야의 10개 주제 중 1개 선택 -외국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개도국 중심의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아시아지역 중심) -해외 한민족의 정착 및 생활 -기타 청소년이 스스로 창안하는 자유주제 및 프로그램 등						
경비부담	전액 지원(항공료/체재비/활동비/여행자보험) -체재비: 조사연구단 1인 1일 8만원, 자원봉사단 1인 1일 5만원 -활동비: 조사연구단 팀당 50만원, 자원봉사단 팀당 150만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팀 구성 및 주제선정 -의식주 및 주제에 관한 사전정보 습득 -현지 협력기관과의 탐방 일정약속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지자체, 사회단체 등) -프로그램 기획 및 건강·활동 관련 물품 준비 -해외탐방단 발대식(팀 대표 프리젠테이션, 타 프로그램 경험자 프리젠테이션, 유의사항 안내 등)						
전개 (활동 시)	-현지 적응 및 탐방 계획 수립, 지도답사, 이동수단 확정 -설문조사 및 기관탐방 인터뷰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정리 (활동 후)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활동결과보고회 및 시상식 등 행사참여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대한민국청소년 세계를 가다!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주제에 제한이 없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님. 2. 현지협력자들에게 민간외교관 역할 수행.(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협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음) 3. 탐방기간 중, 팀워크 및 자립심 발달 4. 여행으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현지인을 접할 수 있어,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 가능. 5. 탐방활동 후, 관련 수업을 듣는 등 해당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지. (자유주제이기에 가능한 점)	1. 현지 협력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공문 등의 좀 더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 2. 좀 더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위해, 최종 선발 후 활동 전, 국내 전문가 등을 통한 주제 구체화 혹은 보완 필요. (담당 교수 등 멘토 필요성) 3. 참가자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가능토록 할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임. 4. 항공료 이외의 기차/버스 등의 장거리 이동비가 활동비에 포함되어 이동에 한계.

* 평가자: 강혜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프로그램	⑦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국제교류(2006년 멕시코 파견)					
참가대상	만 15-24세 모든 청소년					
참가인원	청소년 8명(지도자, 통역포함 총 10명)					
활동기간	10월(7.21~7.30)					
활동장소	멕시코					
활동목표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를 2006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을 함양”					
활동주제	Future Oriented project 2006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1,001,850원, 정부와 참가자 각각 50%부담,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 전액지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참가자 선발 -사전교육 1차/2차 워크숍 -팀 구성(촬영 담당, 기록담당, 공연담당) 및 프로그램 기획(한국전통 공연 준비) -멕시코에 관한 의식주 및 문화차이에 관한 사전정보 습득 -건강 및 활동 관련 물품 준비					
전개 (활동 시)	★우리는 하나(첫날 환영회): Homestay in Cuernavaca City ★마야문명 탐사 : - 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 Tepozteco과 Xochicalco 방문 - 소갈로: 옛 궁전 National Palace 및 역사박물관 방문 ★청소년 문화교류 - Mexican Youth Institute, Youth organization 견학 - Palacio de Bellas Artes(미술관), 멕시코 전통시장, 청소년광장 방문 ★경제협력 - Bimbo Company, Grupo Modelo Company, Teletón(장애우들을위한 사회복지기관) 견학 - 국회의사당 견학 및 멕시코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 - 마지막 날 환송회					
정리 (활동 후)	-사업평가 : 결과 보고서 작성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제교류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었음. 2. 민간단체가 국가와 민간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민간대사의 역할수행 3. 멕시코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4. 청소년들의 자율적 기획과 주체적인 진행을 통한 협동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제공 5. 모든 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자극하고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심어준 계기가 됐음.	1. 멕시코 문화 및 생활양식에 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국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을 할 소지가 있음. 2. 멕시코 현지기관 방문 전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3. 너무 빠듯한 일정에 참가자들의 원활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4. 날씨나 기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스케줄에 대한 보완이 미비했음. 5. 귀국 후, 우리 활동에 대한 평가와 격려, 그리고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기회가 없었음.

* 평가자: 김미진(대구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	⑧ 외교통상부 2006년 한일 양국 대학생간 교류사업					
참가대상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기존 정부주관 청소년교류 사업에 참가경험이 없고 -6개월 이상 일본 체류경험이 없으며 -일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참가인원	한국 대표단 28명					
활동기간	10일					
활동장소	일본					
활동목표	한일 양국 대학생 간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					
활동주제						
경비부담	일본정부 전액지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 선발 -오리엔테이션 -방일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자율 조사 및 사전 준비					
전 개 (활동 시)	-일본 대학생과의 교류(역사, 문화, 사회 경제 에 대한 간담회) -일본의 문화 및 역사 유적, 박물관 견학 -공장 등의 산업시설 견학 및 산업 시찰 -홈스테이(2박3일)					
정 리 (활동 후)	-참가 학생들의 후기 모임 주도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외교통상부 한일 양국 대학생간 교류사업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전문적이며, 한국어에 능숙하고, 또 한국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일본 분들의 도움을 통해 참가자 대부분이 어려움 없이 일본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할 수 있었다. 2. 일본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편하고 적극적으로 일본을 느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3. 역사적 이유로 서로 거부하려고만 하던 한일이지만, 대학생들간의 교류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4. 자신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일본인들을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5. 다양한 활동과 견학, 또 홈스테이로 일본이라는 새로운 곳에서의 체험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한류 문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6. 모든 참가자와 일본 현지 교류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친구와 선후배를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1. 일본 현지 학생들의 경우, 영어에 우수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일본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불편을 겪었다(일본 학교의 선정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다). 2. 비록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학기 중에 가는 활동이라 개인별 준비가 미흡하였다.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뿐 아니라 준비 모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출국 전에도 학생끼리의 자발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3. 친절하고 적극적인 일본 담당자분들께서 설명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만, 덕분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조금만 요구되었다(하루정도는 학생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넣음으로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비록 학기 중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10일이라는 일정이 조금 짧은 것 같다.

* 평가자: 윤형원(KAIST)

프로그램	⑨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					
참가대상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한 · ASEAN 관계에 관심 있는 자 또는 전공자					
참가인원	청소년 대표단 20명					
활동기간	10일					
활동장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활동목표	청소년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 · ASEAN 관계 모색					
활동주제	청소년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 · ASEAN 관계 모색					
경비부담	한 · ASEAN 협력기금에서 전액 지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 선발 -외교통상부 오리엔테이션					
전 개 (활동 시)	-스터디 투어 -워크숍 개최 -분야별 시찰 -양국 청소년 간 대화의 시간 -봉사활동 등					
정 리 (활동 후)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방문국가 중 하나가 미얀마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가기 쉽지 않은 곳을 감안할 때 의미가 컸음. 2. 방문국 언론사 취재 및 언론보도는 긴장감과 함께 참가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였음. 3. 기관방문을 통해 미얀마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한국의 엄청난 공헌을 알게 되면서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게 됨. 4.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한국에서의 1박2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역할 분담 등 참가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참가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음. 5. 방문국 관계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적극성과 친절함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귀국 뒤 분담했던 업무를 수집하여 최종보고서로 마무리함으로 프로그램을 의미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음.	1. 태국과는 다르게 미얀마에서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음. 2. 방문국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기회 중에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없었던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취지에 못 미친 아쉬움이 있음. 3.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짧게라도 봉사활동의 기회가 없었는데,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인 만큼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한아세안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두고 양국 간의 발전적 대화나 배움의 기회가 없이 문화행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느낌을 받았음. 5. 간혹 행사 제목과 지나치게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국가간 확실한 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 평가자: 현혜리(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프로그램	⑩ 한중일 대학생들을 위한 국제비즈니스 콘테스트					
참가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으며 -경영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어회화 가능자					
참가인원	한국 대표단 30명					
활동기간	8일					
활동장소	한국, 서울 여성 플라자 회관					
활동목표	OVAL(Our Vision for Asian Leadership)은 미래의 파트너가 될 한중일 젊은이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통해 리더십 함양과 문화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실전 경쟁 경험 -동북아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마인드 함양 -영어 커뮤니케이션 향상 -전문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활동주제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 (30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참가자 선발(1차: 서류전형, 2차: 그룹면접)					
전개 (활동 시)	-3 person 1 team: 한중일 각각 한명씩 3명이 한 팀을 이룸 -culture seminar: 대회 전 세미나와 관광을 통해 문화이해 도모 -case study: 공통된 하나의 주제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presentation 토너먼트: 각 팀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결승진출 팀 선출 -business plan 컨설팅: 예선 전 아웃풋을 통해 컨설턴트로부터 팀별 컨설팅을 받음 -final stage: 결승 진출 5팀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경쟁					
정리 (활동 후)	차기 대회 참가 혹은 직접 준비기획단으로 활동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한 · 중 · 일 대학생을 위한 국제비즈니스 콘테스트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韓·中·日 다문화권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실제 사업구상을 모의 해볼 기회를 제공 2. 사업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韓·中·日의 제도·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부여 3. 사업구상을 하는 시간 내내 팀內 멤버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며 영어회화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행사 일정 중 무려 80시간) 4. 개최국 순환제도에 의해 방문 국가에 대한 문화적·체험적 지식을 제공(본 대회 전후로 해당 국가의 명소 관광 및 체험) 5. 행사 특성상 사업구상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경영학적 지식의 有/無와 크게 상관없이 학생들의 창의력, 참신성, 자신감을 향상시킴	1. 韓·中·日 3개국에 제한된 국가구성을 ‘국제비즈니스 콘테스트’의 명색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대회 기간 중 학생들이 구상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 전문 컨설팅을 통한 심도 있는 평가와 해설을 통해 사업구상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행사에 각국 대표로 참가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위원단의 의사소통 능력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현행의 ‘사업구상 위주’ 대회에서 탈피해 다각화된 콘텐츠 개발 필요가 있음. 현행의 고정된 대회 방식으로는 1회 이상 참가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대회의 신뢰도가 떨어짐 5. 대회 후원 업체를 적극 모색하고 자금지원 루트를 확보해 규모의 대회(competition of scale)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 평가자: 김종환(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프로그램	⑪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					
참가대상	만 18~30세 누구나					
참가인원	본인					
활동기간	1년(호주는 최장 2년까지)중 9개월(2005. 5~2006. 2)					
활동장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중 1개국(호주)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비자협정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1년간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맞는 준비를 통해 건전한 해외여행을 경험한다.					
활동주제	새로운 경험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초기생활비용 약 200~300만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 인터넷과 설명회참가 등을 통한 자발적인 정보검색 - 인터넷 비자 취득과 신체검사를 통한 비자취득 - 사전 활동계획 수립					
전 개 (활동 시)	-일자리경험(단기취업) : 정착 1개월 후 현지인 식당에 웨이터로 취업(이력서를 직접 돌림), 3개월간 근무 : 현지 취업 Web-site를 통한 이직-식당 주방, 호텔청소 : 한국인을 통한 호텔주방취업 (초기 자본금보다는 벌어서 생활비로 모두 충당, 초기 자본금은 후에 여행자금으로 전용) -어학연수 : 도착 후 적응을 위한 1개월 단기 어학원 등록 : 첫 일자리 후 필요성에 의해 8주 단기 학원 등록 -배낭여행 : 귀국 두 달 전부터 계획하여 한 달 동안 배낭여행					
정 리 (활동 후)	-2006 워킹 홀리데이 박람회의 사전경험자로 참가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참가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여 독립성 확보에 큰 도움. 2. 민간 단체(어학원, 종교단체)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초기 정착의 불안감 해소. 3. 참가자들이 현지 교민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소비자 역할도 하고 있어 교민 경제를 유지하는데 기여. 4. 현지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기획, 리더십 함양에 큰 도움. 5. 여행, 현지 활동 등을 통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감각 배양.	1. 참가자의 자발적 정보 획득 노력이 없이는 사전 정보를 얻기 어려움.(박람회, Web-site 역시 아는 사람만 가고, 주위의 소개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결국 프로그램 홍보의 미흡. 2. 민간단체의 성격상 이익에 의해(수익금, 종교가입 등)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참가자의 다양한 경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곳에 오래 정착, 이익이 적게 나는 곳은 소개해주지 않음). 3. 동포 또는 현지인에 의한 참가자들의 피해가 간혹 발생(임금 체불, 성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의 전무. 4. 현지에서 일자리나 주택을 구할 경우 현지법령을 몰라 피해보는 사례 발생, 이를 위한 현지 감시기관의 필요.

* 평가자: 임찬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프로그램		⑫ 아!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참가인원	50명					
활동기간	11일					
활동장소	상해-서주-부양-임천-남양-노하구-보강-홍산-의창-중경-서안-한단-북경					
활동목표	장준하기념사업회가 대학생에게 민족정신함양을 목적인 사업으로, 과거 광복군의 자기희생정신과청년정신을 되살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배우며, 통일되고 자주 독립된 나라를 21세기 오늘의 현실에 맞게 이루겠다는 자기 결의를 다지는데 있다.					
활동주제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80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사전교육					
전 개 (활동 시)	-虹口(홍구)공원(윤봉길의사 폭탄투척 장소), 상해임시정부 견학 -쓰카다(塚田)부대(현 중국공정병지휘학원) 및 不老河(불노하) 방문 -중국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 한국광복군특별훈련반(현 임천제일중학교) 견학 -제 1차 강연: 독립운동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길 -중국중앙군 남양전구 사령부(현, 남양경제무역학교) 방문 -제 2차강연: 한국현대사와 장준하 -이종인부대 역사박물관, 복민병원(현 공산당간부숙소) 방문 -한중 친선의 밤 -중경 광복군 총사령부(현재 미원식당) 견학 -서안시 杜曲陳(두곡진) 광복군 제2지대 OSS훈련장 방문 -진나라 병마용, 당나라 화청지 등 견학 -경기도 광탄리 장선생 묘소참배 및 해단식					
정 리 (활동 후)	-나눔의 집 방문, 약사봉 방문, 연어 방류 행사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아!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방중행사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낯선 중국 땅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무엇보다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됨. 2. 장준하 선생님의 책 “돌베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현장감을 높일 수 있음. 편한 길이 있음에도 힘든 과속령을 넘어 중경으로 가는 것도 선생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함임. 3. 음식, 숙소, 이동수단 어느 하나 불편한 것이 없어 장정 일정에 집중할 수 있음. 4. 중국 현지의 대학생들, 그리고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던 중국인 등 현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상해, 북경 등 중국의 발달한 도시 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많이 들르기 때문에 중국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줌. 6. 장정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약사봉 방문, MT를 나눔의 집으로 가는 등 장정에서 느낀 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줌.	1. 출발하기 전에 참가자들끼리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장정 과정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있음. 2. 참가자들에게 장정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장준하 선생님의 삶과 그 행로 즉 “돌베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좇는 참가자들은 일부에 그침. 3. 일정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음. 4.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 일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돌아감. 5. 장준하 기념 사업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정을 다녀와서 사업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업회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업회에 계속 얼굴을 내밀기가 힘들게 됨.

* 평가자: 손주연(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프로그램	⑬ 중국과학탐험대(Science Rover to China)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참가인원	3 2명 8개팀 (북경 4팀, 상해 4팀)					
활동기간	7일					
활동장소	북경, 상해					
활동목표	한국과 중국의 이공계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을 방문하여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방향 습득 및 협력방안 모색					
활동주제						
경비부담	과학문화재단, 미래숲에서 전액 지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사전교육1: EXPO과학축전 자유관람 -사전교육2: 중국화학탐험대 행사소개 및 일정소개 -사전교육3: 중국과학탐험대 활동을 위한 한국과학문화현황, 중국과학문화 현황 강의 -사전교육4: 중국에서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국어 회화 강의					
전개 (활동 시)	-중국체협: 만리장성, 이화원, 자금성 -기관참여(팀별로 주제에 맞게 기관탐방 조사) 북경팀: Beijing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Golden Fish Pond Community, Beijing Chaolai Agronomy Enterprise, 북경항공대학교 등 상해팀: Shanghai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상해대의 과학기술교류중심, Shanghai Multi-media Valley, Shanghai Spaceflight Technology Exhibition, 복단대학교 등					
정리 (활동 후)	-중국과학탐험대 활동의 결과보고발표: 최우수팀1팀, 우수팀1팀 선정, 발표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중국과학탐험대(Science Rover to China)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되어야할 내용
1. 프로그램을 주최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직접 가고 싶은 곳을 각 팀별 계획서를 계획함으로써 확실한 동기부여를 시킴 2. 과학문화재단과 민간단체가 합작하여 시행함으로써 중국측 방문지 선택 시 보다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직접 대면하여 각 팀의 주제에 맞게 맞춤형 국제교류가 이루어짐 3. 실제로 모든 일정을 전체일정과 팀별일정으로 분리함으로써 과학탐험대라는 주제아래 8개의 소주제로 팀별로 팀별일정을 수행함으로써 팀별 선의의 경쟁과 적당한 자극을 줌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됨. 4. 행사 후 결과물을 가지고 팀별로 주제발표를 시행하고 시상식을 시행함으로써 자기 팀 연구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열정을 가지게 됨 5. 각 팀별로 통역원을 붙여 줌으로써 중국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도록 조치 됨.	1. 팀별일정에서 인솔자 없이 팀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음 2. 중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에 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국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을 할 소지가 있음 3. 팀별로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과학탐험대라는 주제 아래 전체 단합의 시간이 부족함 4. 한 팀의 실수로 인하여 전체 팀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5. 각 팀별방문지에 단순히 학생들만 가게 됨으로 단체방문보다 소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자: 명정인(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프로그램		⑭ 제2회 제주 한일국제워크캠프						
참가대상	만 16세 이상의 한일 청소년							
참가인원	25명 (한국인 13명, 일본인 12명)							
활동기간	10일							
활동장소	제주도 제주시 예래생태마을							
활동목표	1)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이해 확대 2)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Workcamp 3) 제주 예래마을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동주제	한일이 하나 되어 지키는 제주 예래생태마을 체험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참가비: 100,000원, 교통비)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1. 참가자 선발 2.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예래마을에 대한 이해와 각 캠퍼들 간의 친목 도모							
전개 (활동 시)	1. 작업 -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협력 - 생태마을 만들기 협력 - 한일 문화 비교 2. 강의 및 토론 주제: 지역의 생태 특성과 중요성, 보존 활동 3. 제주지역 답사							
정리 (활동 후)	1. 결과 보고서 정리 2. 행사참가자 사후 관리							
		타당성 평가		매우 우수	약간 우수	보통	약간 미흡	매우 미흡
계획평가	목적 · 목표 설정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내용의 타당성	5	4	3	2	1		
	예산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5	4	3	2	1		
과정평가	관련기관 · 참가자의 협력정도	5	4	3	2	1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합성	5	4	3	2	1		
	각 단계별 이행정도 및 충실도	5	4	3	2	1		
결과평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4	3	2	1		
	글로벌 리더십 향상 정도	5	4	3	2	1		
	자신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 정도	5	4	3	2	1		

■ 한일 워크캠프 프로그램 평가

긍정적 효과	개선해야 할 내용
1.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된 일본의 청소년과 함께한 워크캠프를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제주도라는 섬에서 이루어진 워크캠프 덕분에, 한국인이지만 제주도를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인에게는 그저 관광 휴양지로만 알려진 장소의 자연과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다. 3. 양국의 문화 교류 발표회를 열어 지역 주민을 초대하였다. 한국 팀은 사물놀이를, 일본팀은 전통 다도와 유카다 패션쇼를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를 공개된 장소에서 즐거운 축제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 4. 예래마을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캠퍼들이 묵은 숙소는 그 마을의 노인회관이어서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5. 예래마을은 유네스코의 정기적인 워크캠프를 통해 그 홍보 및 저가 예산으로 마을 환경미화를 할 수 있어 좋고, 유네스코를 통해 워크캠프에 참석한 캠퍼들은 자연 탐구의 학습지와 야유의 장소로 아름다운 예래마을을 느끼고 갈 수 있다.	1. 예래마을 지역 주민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개적인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캠퍼의 경우,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연결 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2. 캠프 기간 동안의 유동성이 강한 프로그램 일정 때문에 캠퍼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말은 바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워크 캠프'라는 의미가 퇴색될 소지가 있다. 3.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캠퍼들 간의 세세한 의견 교환 및 인생관을 나누지 못해 많이 아쉽다. 언어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척 좋았지만, 캠프 시작 전에 양국의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해와 선행 학습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4. 캠프의 목적에 맞는 '제주지역 자연 생태'에 대해 학습 가능한 지식적 측면의 도우미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평가자 윤영진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 모델 개발

Ⅵ.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 프로그램 모델 개발

1. 모델 개발의 전제조건 및 영역구분

1) 전제조건

실질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각 기관별로 연수목적, 연수방법과 내용 면에 있어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교류분야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리더십 향상에 초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준은 관련기관의 국제교류활동 목표에 명시된 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활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의 전 과정 그리고 연수 후 평가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이 단순한 관광차원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솔자들을 포함하여 국제교류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지역에 대한 기후조건 및 문화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검색 및 사전교육을 통하여 교류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안전관리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

과정은 최소한 사업계획→사전교육→실행→평가회 및 보고서 작성→사후활동의 단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드시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영역구분

〈표 VI-1〉 청소년국제교류협력 영역구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동북아 청소년교류 모델	체험활동 및 탐구	문화활동	전통문화
			대중문화
			생활문화
		글로벌리더십 함양	국제회의/국제포럼
			국제청소년캠프
			차세대 지도자교류
		학습탐구	언어캠프
			과학탐구
			역사유적지 견학
			Working Holiday
	자원봉사 및 심성강화	자원봉사	해외 한인봉사
			국제환경 보호활동
			국제봉사활동
		탐험	오지탐험/ 영화촬영지 체험
			장애/소외청소년 극기체험활동
		체육교류/ 지역축제 참가	지역축제 참가
			전통무예 시범 (태권도, 쿵푸, 스모)

청소년국제교류의 바람직한 모델개발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준거와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 그 준거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향하는 이념과 도달하고자하는 목표가 있다.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목적은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의도와 성과 및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하고 프로그램의 의도를 명료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간 청소년교류활동은 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제교류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근거하여 대분류에 체험활동 및 탐구 영역과 자원봉사 및 심성강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체험활동 및 탐구 영역에 문화활동, 글로벌리더십, 학습탐구를 포함시켰으며, 자원봉사 및 심성강화 활동에는 자원봉사, 오지탐험, 체육교류 등을 포함시켰다.

2.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영역별 모델 및 평가지표 개발

1) 문화활동 영역

(1) 프로그램의 개요

청소년국제교류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먼저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과 연계된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문화유산답사, 지역문화유산답사, 유적지트래킹, 시내트래킹, 문화강좌, 전통공연관람, 전통예술교습 등 7개 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세계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를 방문

하여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문화적 식견과 마인드를 요청하며,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다.

〈표 VI-2〉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내용	활동장소	소요시간
세계문화유산답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를 방문해 문화적 가치를 탐구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3-4시간
지역문화유산답사	방문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해 역사적 가치를 탐구	지역 유적지	3-4시간
유적지트래킹	2시간 이상 도보여행이 가능한 유적지에서 트래킹	유적지	3-4시간
시내트래킹	시내 곳곳을 트래킹 함으로써 생활 문화 접촉	시내 도심지역	3-4시간
문화강좌	방문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	유적지 또는 강당	2시간
전통공연관람	민속무용이나 민속극 등 전통문화 공연관람	공연장	2시간
전통예술교습	전통음악이나 무예, 공예 등 전통 예술 교습	교습소 또는 강당	3시간

둘째, 지역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은 교류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지역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고 체험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는 대상 국가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유적지를 통해 인류동반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적지트래킹 프로그램은 특별한 장비나 준비된 도구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교류 국가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체험하는 활동이다.

넷째, 시내트래킹 프로그램은 방문 국가의 도심 지역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나 준비된 도구 없이 가벼운 마

음으로 돌아보고 체험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방문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연을 집단적으로 청취하는 체험이다. 청소년은 방문국가에 대한 높은 호기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전통공연관람 프로그램은 방문 국가에서 자국의 전통과 역사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준비한 민속무용이나 민속극 등을 공연장에서 체험하는 활동이다.

일곱째, 전통예술교습 프로그램은 방문 국가의 전통음악이나 무예, 그리고 공예 등에 대해 직접 교습을 받으며 체험하는 활동이다.

(2)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 중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와 관련된 요소가 중요하다. 청소년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적 평가요소와 프로그램별 평가요소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VI-3>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프로그램 평가의 공통적 요소	· 다문화 이해의 증진 및 체험의 기회 여부
	· 타 문화에 대한 문화적 편견 극복 정도
	· 국제적 문화마인드 형성 정도
	· 언어적 장애극복의 지속적인 노력의 의지
	· 국제간 문화교류의 인식확대 정도
	·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우수성 재인식
	· 우리나라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재인식
	· 외국의 청소년과의 지속적 교류 기회 여부
	· 지구촌 공동체 의식의 재인식 여부
	· 외국 청소년의 문화적 마인드 확인 기회

국제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지표는 (1) 다문화 이해의 증진 및 체험의 기회 여부, (2) 타 문화에 대한 문화적 편견 극복 정도, (3) 국제적 문화마인드 형성 여부 정도, (4) 언어적 장애 극복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 (5) 국제간 문화교류의 인식 확대 정도, (6)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우수성 재인식, (7) 우리나라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재인식, (8) 외국 청소년과의 지속적 교류 기회 여부, (9) 지구촌 공동체 의식의 재인식 여부, (10) 외국 청소년의 문화적 마인드 확인 기회 등이다.

한편, 프로그램별 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세계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세계적 문화유산의 관리·보전의 공감대 형성 여부와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 확대 정도이다. (2) 지역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및 정보와 방문 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 극복 정도이다. (3) 유적지 트레킹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 국가의 유적지 분포의 지리적 이해정도와 방문 국가의 유적지에 대한 정보 습득이다. (4) 시내트레킹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국가의 일상적 생활문화의 이해 정도와 방문 국가 시민과의 일상적 대면 기회이다. (5)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 국가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정도와 방문 국가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이다. (6) 전통공연관람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 국가의 전통문화 및 민속에 대한 이해 정도와 방문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이다. (7) 전통예술교습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방문 국가의 전통예술의 체험 기회 여부와 방문 국가의 전통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정도이다.

2) 국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개요

국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는 먼저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VI-4〉 국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내용	활동장소	대상국가 (기존 활동국)
의료지원 활동	환자의 간호, 간병활동 (식사, 세면 및 목욕, 용변 보조 등)	보건소 및 병원	인도, 케냐, 볼리비아, 태국, 프랑스, 캄보디아
교육지원 활동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울동 및 놀이마당, 미술 활동, 컴퓨터, 타자(기술교육), 운동회, 학예회 보조, 세안 및 목욕(위생교육), 급식보조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도, 케냐, 볼리비아, 태국, 캄보디아
마을개발 활동	건축공사 현장(병원, 학교, 유치원 등)지원, 식수개발, 흙 집짓기, 처마고치기, 나무심기, 텃밭 가꾸기 등	마을현장	동남아시아
지역사회 개발활동	운하보수작업, 수로시설 및 도로, 전기 공사 작업 보조	작업현장	영국, 볼리비아,
사회복지 사업참여	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보조, Day Trip 동행,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장애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영국, 필리핀, 몽골, 남미
환경보호 활동	붉은 사슴 등 자생종 보호, 생태계 보호, 열대림 보호, 공원 내 자연보호 활동, 과지 등 생활용품 재활용 활동	국립공원, 밀림지역 등	아일랜드, 남미 및 아프리카
영농기술 보급활동	황폐화된 농지개간 작업, 영농기술의 보급을 통한 농산물 수확활동 (벼, 채소, 과일 등), 축산농장의 대량화, 지뢰제거 작업 등	정글 및 오지 지역	볼리비아, 캄보디아,
구호품 지원활동	의류, 식량 등 구호품 지원, 자립을 위한 차량지원 등	제3세계	몽골, 태국, 중국 조선족

국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지원활동, 교육지원활동, 마을개발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사회복지참여활동, 환경보호활동, 영농기술보급활동, 구호품지원활동 등 8개의 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의료지원활동은 인도, 케냐, 볼리비아, 태국, 프랑스, 캄보디아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을 간병하는 활동, 즉 식사, 세면 및 목욕, 용변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교육지원활동은 인도, 케냐, 볼리비아, 태국, 캄보디아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율동 및 놀이마당, 미술활동, 컴퓨터, 타자(기술교육), 운동회, 학예회 보조, 위생교육, 급식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셋째, 마을개발활동은 인도, 케냐, 볼리비아, 태국, 캄보디아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병원, 학교, 유치원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 보조, 식수개발, 흙 집짓기, 처마고치기, 나무심기,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넷째, 지역사회개발활동은 영국과 볼리비아 지역의 작업현장에서 운하보수작업, 수로시설 및 도로, 전기 공사 작업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 참여활동은 영국, 필리핀, 몽골, 남미 지역의 장애인 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보조활동, Day Trip 동행,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여섯째, 환경보호활동은 아일랜드,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국립공원과 밀림지역 등에서 붉은 사슴 등 자생종 보호활동, 생태계 보호활동, 열대림 보호활동, 공원 내 자연보호활동, 생활용품 재활용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일곱째, 영농기술보급활동은 볼리비아와 캄보디아 지역의 정글 및 오지에서 황폐화된 농지개간작업, 영농기술의 보급을 통한 농산물 수확활동(벼, 채소, 과일 등), 지뢰제거 작업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여덟째, 구호품 지원활동은 몽골, 태국, 중국 지역에서 해당 국가의

주민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의류, 식량 등 구호품 지원활동과 자립을 위한 차량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국제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자원봉사활동을 통해 ①국가간의 상호의존과 공존의 인류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②타국가의 문화와 민족성을 인정하는 문화상대주의와 호혜정신을 갖게 되며, ③국가간의 평화를 중시하는 인도주의 사상을 습득하게 된다.

(2)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

국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 중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는 가장 핵심이다.

〈표 VI-5〉 국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프로그램 평가요소	· 다문화 이해의 기회 및 체험 정도
	· 노동을 통한 땀의 가치 인식 정도
	· 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정도
	· 방문 국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획득 정도
	· 자아확대 및 자기정체성의 확립 여부
	· 언어습득의 성취동기 확대 정도
	·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실천의지 정도
	· 국제적 마인드 형성 및 역량개발 의지
	· 희생정신과 동정심 태도 형성 여부
	· 국가 자긍심 및 민족애 태도 형성 여부

〈표VI-5〉에서는 국제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적 평가 요소와 프로그램별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국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적 평가

요소의 내용은 (1)다문화 이해의 기회 및 체험 정도, (2)노동을 통한 땀의 가치 인식 정도, (3)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정도, (4)방문 국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획득 정도, (5)자아확대 및 자기정체성의 확립여부, (6)언어습득의 성취동기 확대 정도, (7)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실천의지의 정도, (8)희생정신과 동정심 태도 형성 여부, (9)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애의 태도 형성 여부 등이다.

한편, 프로그램별 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의료지원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나이팅게일 정신 및 인류에 의식과 위생관리 및 건강에 대한 민감성 정도이다. (2)교육지원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와 학습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열정의 형성이다. (3)마을개발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생활주거 공간의 소중함에 대한 재인식과 식수의 중요성 재인식 및 절약을 위한 실천 의지이다. (4)지역사회개발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의 소중함에 대한 재인식과 공공시설의 관리·유지에 대한 참여 의지이다. (5)사회복지사업참여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동정과 배려 의식 정도와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실천 의지이다. (6)환경보호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전 지구적 환경보전 중요성 인식 정도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활화 실천 의지이다. (7)영농기술보급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먹거리 및 농산물의 중요성 재인식과 농심(農心)과 근면성 실천 의지이다. (8)구호품지원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인류공동체 의식 및 인류애에 대한 재인식과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의 생활화 여부이다.

3) 오지탐험 및 심성강화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개요

오지 탐험 및 심신 단련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지 탐험 및 심신 단련 프로그램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오지탐험 및 심신 단련 프로그램은 <표 VI-6>에서와 같이 오지탐험, 트레킹, 오리엔티어링, 로프코스, 암벽등반, 마운틴바이킹, 급류타기, 번지점프, 철인삼종경기, 비치발리볼, 스노클링 등 8개의 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오지탐험 프로그램은 모험활동을 특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단절된 세계, 미지의 세계, 자연의 세계, 토속의 문화지역에 청소년이 들어가 체험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하며, 오지 자연환경탐사, 오지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오지마을 생활문화탐사, 오지영상 및 사진 전시회, 강을 따라가는 오지탐험, 산을 따라가는 오지탐험, 오지 가족 캠프 등이 있다.

둘째, 트레킹(trekking)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정처 없이 집단 이주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목적지가 없는 도보여행 또는 산·들과 바람 따라 떠나는 사색여행을 말한다. 청소년이 오지탐험을 위해 밀림지역의 등산로를 특별한 장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활동으로 보통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활동이며, 자연보호를 중시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셋째, 오리엔티어링(orienteeering) 프로그램은 자연의 산야·숲 등의 코스에서 지도와 나침반만을 사용하여 몇 개의 정해진 지점을 거쳐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익숙하지 않은 오지를 탐험하면서 심신을 단련시키는 활동이다.

넷째, 로프코스 체험 프로그램은 험준한 산악지역의 계곡을 줄을 이용해 건너가는 활동으로 청소년에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암벽등반 프로그램은 산악지역에서 험준한 암벽을 준비된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활동으로 청소년에게 강한 체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집중력과 모험심, 그리고 협동심이 요청되는 중

합스포츠이며 심심단련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파른 산길, 덩불 숲, 웅덩이, 진흙길 등 자연림을 탐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심심단련에 유익한 활동이다.

〈표 VI-6〉 오지탐험 및 심성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내용	활동장소	소요시간
오지탐험	인적이 드문 오지를 대상으로 오지자연환경탐사, 봉사활동, 생활문화탐사 등을 체험하고 탐험한다.	밀림, 산악	4
트레킹	밀림의 등산로를 특별한 장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걷는 운동이다.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	밀림	4
오리엔티어링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밀림지역을 탐험 한다..	밀림	9
로프코스	계곡을 줄을 이용해 건너가는 활동.	산악	1
암벽등반	암벽등반은 체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상당한 집중력과 모험심, 그리고 협동심을 요구한다..	산악	2
마운틴바이킹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산길, 덩불 숲, 웅덩이, 진흙길 등 자연림을 탐험한다.	산악	3
급류타기	고무보트를 이용해 계곡을 내려온다. 스릴과 모험심을 느끼게 해준다.	계곡	3
번지점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로 체력과 담력을 기른다.	계곡	1
철인삼종경기	수영과 사이클, 그리고 달리기로 구성된 스포츠 형태로 인간의 한계 극복을 시험해 보는 스포츠 활동이다.	해양	6
비치발리볼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모래사장에서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훨씬 더 든다.	해양	4
스노클링	간단한 장비만을 가지고 얇은 물에 잠수하여 수중세계의 신비함을 즐기는 래저 스포츠이다.	해양	2

여섯째, 산악자전거 체험 프로그램은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여 지점(포스트)을 거쳐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익숙하지 않은 오지를 탐험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급류타기 프로그램은 팀을 구성해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 및 협곡의 급류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체험활동으로 스릴과 모험심은 물론이고 협동심이 강조되는 집단체험활동이다.

여덟째, 번지점프 프로그램은 높은 지역의 고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마련된 시설과 장비를 통해 아래로 뛰어내리는 체험활동으로 청소년에게 강한 체력과 담력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이다.

아홉째, 철인삼종경기 체험 프로그램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로 구성된 스포츠의 형태로 청소년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체육적인 특기와 인내,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요청하는 체험활동이다.

열 번째, 비치발리볼 체험 프로그램은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로 비치발리볼을 이용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되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협동심을 요구한다.

열한 번째, 스노클링 체험 프로그램은 스노클을 사용하여 강과 바다 속을 구경하는 일종의 수상스포츠로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수영 능력과 기본 장비를 다루는 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수압에 맞추어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수중세계의 신비함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

오지탐험 및 심신 단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 중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와 관련된 요소가 중요하다. 청소년이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표 V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적 평가요소와 프로그램별 평가요소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VI-7〉 오지탐험 및 심성강화 프로그램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프로그램 평가요소	· 다문화 이해의 기회 및 체험 정도
	· 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재인식
	· 모험심과 도전의식 제고
	· 개척 정신과 인내심의 제고
	· 자기 주도적 행동 및 실천의 생활화
	·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
	· 방문 국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획득
	· 국제적 마인드 형성 및 역량개발 의지

오지탐험 및 심신단련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지표는 (1)다문화 이해의 기회 및 체험 정도, (2)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재인식, (3)모험심과 도전의식 제고, (4)개척 정신과 인내심의 제고, (5)자기 주도적 행동 및 실천의 생활화, (6)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 여부, (7)방문 국가에 대한 지식 및 정보 획득 정도, (8)국제적 마인드 형성 및 지속적인 역량 개발 의지 등이다.

한편, 프로그램별 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오지탐험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의 내용은 생존의지 및 생존방법기술 습득 정도, 오지문명 및 생활양식의 체험 기회여부이다. (2)트레킹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밀림의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증진이다. (3)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목표설정 능력 및 목표의식의 재인식 여부와 파트너 및 팀원 간의 효과적인 역할 체험여부이다. (4)로프코스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산악의 안전의식 및 긴급구조 및 조치 방법에 대한 기능 습득 여부이다. (5)암벽등반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 내용은 집중력과 모험심, 협동심 배

양 여부와 강인한 체력단련과 인내심 함양 여부이다. (6)급류타기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팀워크 및 협동심 배양 여부와 체력단련 기회 여부이다. (7)번지점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모험심과 담력(용기) 신장의 기회 여부와 안전의식에 대한 재인식 기회 제공 여부이다. (8)철인삼종경기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 함양 여부와 수영·사이클·육상의 특기개발 여부이다. (9)비치발리볼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팀워크형성 및 효과적인 역할 수행 기회 제공 여부와 균형 잡힌 체력단련 기회 여부이다. (10)스노클링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내용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획득여부와 모험심 및 심신 단련 기회제공 여부이다.

3.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평가지침 및 유의점

1) 개요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청소년교류프로젝트가 종료될 시점에서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평가와 함께 최종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었거나 이전의 것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하며, 어떤 경우이건 평가과정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조치(Follow-up)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기술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 ②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 성취한 결과를 점검하기를 원한다.
- ③ 자신들의 학습경험을 성찰하고 재확인하기를 바란다.

- ④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효율적이며,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관해 알고 싶어 한다.

평가 과정이 단순히 소요비용 산정, 대외홍보 수단, 문제점 지적 등과 같은 몇 가지 사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와 각각의 세부 활동에 대한 추진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주요 장점은 사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업을 준비하는 기점이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사회변화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종평가는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사정, 사업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미래프로젝트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취된 결과, 목표달성정도, 재정운영, 조직에 미친 영향정도, 사업추진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취결과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성취결과에 대한 평가는 계획단계에서 예측했던 내용과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우연히 얻게 된 결과를 구분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고, 또한 그것들이 참가자, 조직, 파트너십,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② 목표달성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명시된 각각의 목표들에 대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구체적인 측정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종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교육적 측면과 같은 항목은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질적인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재정운영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업종료 후 반드시 후원단체나 조직에 재정 운영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에 비해 중요하다.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단순히 소요된 예산의 지출과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이 사용된 분야와 유용하게 사용된 정도, 그리고 앞으로 추진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새로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직에 미친 영향정도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 주체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성격에 부합되는 사업목표와 접근방식들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및 전문성, 새로운 구성원, 새로운 파트너십 및 평판, 추가적인 자원 동원,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⑤ 사업추진 과정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뿐만 아니라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학습효과 혹은 현장경험의 형태로 획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전반에 관한 과정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비해 어떠한 측면이 차이가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평가계획 및 수행과정

평가계획과정은 목표설정, 접근방식 결정, 실천계획 수립 등과 같이 프로젝트 계획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 모든 프로젝트의

평가가 그림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항상 계획되고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① 사전준비(Preparing)

평가의 대한 사전준비로서 가장 먼저 평가의 정확한 의도, 평가의 목표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며,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마땅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이다.

② 설계단계(Designing)

일단 평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가의 내용(인적·물적 자원 활용, 교육적 방법, 성취결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와 영역(양적평가, 질적평가) 및 평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정보수집(Collecting the information)

평가의 범주와 평가지표가 확정되고 나면, 다음과정은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수집될 정보는 주로 사업계획서, 프로젝트에 참가자들의 규모와 특성,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 사후관리 계획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수행과정 혹은 종료 후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기록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보 해석(Interpreting the information)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작업은 정보의 종류와 평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소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미 제시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들에 근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전의 유사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과 비교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⑤ 사정(査定) 및 결론도출(Assessing and conclusions)

평가 혹은 사정은 수집된 정보나 자료로부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수행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 내며, 성취한 결과를 부각시키고 이를 프로젝트 본래의 목적과 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⑥ 결과의 활용(Implementing results)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한 모든 정보와 결론들을 어떤 형태로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일차적으로는 앞으로 추진될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조직의 발전에 기여해야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단체는 평가결과를 인정하려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의 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업의 효율성 추구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조직혁신 및 프로젝트 개발에 있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유의사항

어떤 형식이든 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평가 시기(Time)

모든 프로젝트는 평가를 위한 시작점과 끝나는 순간이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종료되어

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계 혹은 과정별로 종료시점과 되돌아 점검해볼 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종평가와 마찬가지로 중간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시간 관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프로젝트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평가과정을 관리하는데 장애가될 수도 있다. 또한 평가 시기는 제 시간에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에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초기 단계에서 목표에 대한 정의를 명료하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적 혹은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관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원래 의도되었던 사업 목표와 성취된 결과들 사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령 중간평가결과 목표가 수정되었다 할지라도 변화된 내용을 가능한 한 분명히 기술해야 하며,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③ 적절한 평가계획 수립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평가계획이 초기 단계부터 마련된다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계획과정은 단순한 준비 차원이 아닌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초기에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평가의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정함에 있어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한다.

둘째, 유사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평가결과들을 참고하면서 비

교할 수 있는 내용과 경향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평가과정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근본 목적 및 목표, 그리고 평가의 본래 취지를 상기하도록 한다.

넷째, 프로젝트를 통하여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미칠 결과와 영향요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평가과정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면서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4. 우수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 사례 개발

다음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한중일 3국간에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진 회의 및 인터넷 공모와 심사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 주제 :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거주 한인청소년들과 국제연대회의 추진

1) 개 요

- 명 칭 : 중국거주 한인청소년 연대회의
- 참가대상 : 한국대표단, 중국거주한인청소년 대표단, 청소년지도자, 정부관계자
- 주 관 : 한인청소년 연대회의 추진단
- 후 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 주요내용 : - 청소년연대회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청소년대표단 구성/운영
 - 추진단 워크숍

- 의제 선정 및 연구
- 본 회의 참석자 전원 사전 캠프
- 선언문 채택

2) 목 적

-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청소년활동 강화
- 한국 및 중국거주 한인청소년들에 대한 민족의식 고취
-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 저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청소년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3) 추진배경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고도의 국가심리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세계강대국으로 변모한 중국이 패권주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우리 역사를 지켜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정체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찰과정을 통해 역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4) 기본방침

- 청소년의 대표성과 자율성 보장
추진단 구성에 있어 양국의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고려하며, 의제선정과 발표도 주도적이며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과 성인들의 파트너십 발휘
추진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물론, 추진과정에서의 제반 결정 과정에 청소년과 성인들이 동등한 파트너십 유지

○ 범정부적·범국민적 지원

회의 준비 및 개최, 그리고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청소년위원회
회를 포함한 범정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언
론·시민단체의 동참과 협조를 구함

○ 청소년 문화축제와 연계

양국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연계하여 전시회 및 전통문화 발표
회를 통한 국가적인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추진

5) 기대효과

○ 양국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동북공정’의 정확한 실체파악

○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및 정책담당자들의 참여를 통한 범국가
적 차원에서 ‘동북공정’ 저지운동의 계기마련

○ 청소년들이 회의 준비와 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역
사적 리더십 강화기회 부여

○ 양국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1) 해외동포 청소년들과 친선교류
참가대상	국내외 청소년들(재외동포가 많이 가 있는 나라. 이민 2,3세대가 되어 모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청소년들)
참가인원	40
활동기간	6 일
활동장소	한국 - 민족적 자긍심과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다님.
활동목표	해외 이민 청소년들에겐 한국인임에도 이민 2, 3세대로 가면서 민족적 자긍심 저하와 모국에 대한 관심결여 심화. 이를 다시 고취시키고 한국 청소년들에겐 해외에도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들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한 민족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활동주제	WE ARE THE ONE !!!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200,000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 놀러온다는 생각으로 오거나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학생 배제) -참가전 모여 상대 국가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아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전 개 (활동 시)	-첫째날 : 발대식, 해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각국 언어로 간단한 한민족사 강연. 식사 후 간단한 게임등으로 ICE BREAKING -둘째날 : 서울지역(남산 한옥마을 , 국립중앙박물관) 탐방 및 경기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저녁시간에는 선물교환 및 조별로 자신의 나라 소개하며 이야기함 -셋째날 : 공주지역 탐방.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및 낙안 읍성에서 하루 체험. -넷째날 : 지리산 or 설악산 등반. (같이 등산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음. 서로 도와줌) -다섯째날 : 부산지역 탐방. (40계단 자갈치 시장 등.) -여섯째날 : 롤링페이퍼 작성 및 연락처 교환. 서울 이동. 영화 관람 or 쇼핑 등 자유시간. 해단식.
정 리 (활동 후)	1. 행사 참가자들 간에 사진 교류 및 편팔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도움을 줌.

프로그램	2)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참가대상	- 국내 대학(원)생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제시된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
참가인원	20명
활동기간	30일
활동장소	미국(특정 주 한곳 지정)
활동목표	한국 젊은이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미국의 각계 리더들과의 직접적 만남과 학생들 간의 연구조사를 통한 실질적 훈련
활동주제	리더십 키우기
경비부담	참가자 일정부분 부담(800,000원) : 항공료 정도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4개정도의 주제를 주고 주제별 선발) -주제 관련 사전교육 -조 정하기 및 팀별 과제준비
전개 (활동 시)	-각 주제별 멘토와의 만남 -전반적 리더십 강연(미국의 학계,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로 한국인과 미국인이 교루 분포된 강사진) -주요 기관 및 유적지 관광 -미국 학생들과의 만남(주제별 전공자들끼리도 좋음) -주 1회 봉사활동 -문화교류의 날(한국전시회 및 문화소개) -팀별 주제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 준비
정리 (활동 후)	1. 결과보고 발표회 2. 참가 후기 자료집 제작

프로그램	3)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참가대상	한/중/일 대학(원)생
참가인원	18명(각국 6명씩 6인 1조)
활동기간	7 일
활동장소	한/중/일 중 1개국(해마다 돌아가면서 차례로)
활동목표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에 대해 각국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한다. 그리고 각국의 입장에서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활동주제	아카데미 차원에서의 한/중/일 문화 교류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각국 참가자들의 주제에 대한 연구 (주제 분석 및 발표준비) -주최국에선 자료를 미리 받아 자료집 만들 것
전 개 (활동 시)	-첫째날: 각국 학생들 주최국에 도착 한/중/일 삼개국 학생들 자기소개 -둘째날: 주최국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셋째날: 주최국 외의 다른 1개국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넷째날: 주최국 외의 다른 1개국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다섯째날: 삼국의 학생들이 서로 느낀 바 자유발표 -여섯째날: 주최국 관광 및 교류의 밤 -일곱째날: 출국
정 리 (활동 후)	결과보고 발표회-잘한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정리해서 뒷 기수에게 넘겨주기 위해 자료집 작성.

프로그램	4) 한일청소년 '하나되어'
참가대상	한 · 일의 청소년중 지체 또는 정신장애인
참가인원	20명(한, 일 청소년 10명씩 그리고 10명의 도우미) -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한쌍을 이루도록 함
활동기간	7 일
활동장소	서울, 지방- 도쿄, 지방(격년으로 돌아가며 방문)
활동목표	한일 양국의 장애청소년들이 만나 서로 협력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우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그램을 통해 나아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한다.
활동주제	Friendship for social welfare & Asia
경비부담	무료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선발(한·일 청소년 커플의 도우미) -사전교육 워크숍(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 미팅) -1~2회 별도로 만남을 유도
전 개 (활동 시)	-강연 2 회: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한국체험1: 한국재활복지대학 방문 및 토론 -한국체험2: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방문 -한국체험3: 장애인시설 우수대학 방문 -한국체험4: 도우미와 함께 1일 서울관광(대중교통 이용) -한국방문: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센터 등 기관방문 -한국문화체험1: 정동극장 및 난타관람 -한국문화활동2: 재활복지대 학생들과 장애인 인권 홍보 -자원봉사활동: 서울 시내(명동, 대학로 등)에서 일본문화 홍보 -환송회
정 리 (활동 후)	1. 결과보고 발표회(도우미도 함께) 2. 행사참가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5) 국제모의유엔회의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참가인원	참가자 기선발 20명 내외, 그 외 초청 인원 100명
활동기간	10일
활동장소	서울 유스호스텔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 활동 공간 무료 활용 가능)
활동목표	미국 각 주(특히 뉴욕)나 캐나다, 구라파 국가들 중심으로는 이미 국제적인 모의유엔대회가 그 전통을 가지고 국제적 성격을 띠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없는 실정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 당선되고, 날로 국제 활동에 청소년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적 성격을 띠는 모의유엔대회 개설이 청소년의 국제 활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
활동주제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in Korea
경비부담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교통비 자부담, 순수 참가비 23만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합숙훈련을 통한 세계 활동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합숙훈련을 통한 유엔대회의 학습, 주제 탐구 및 회의 준비
전 개 (활동 시)	-합숙훈련의 대략적 일정 개시 01: 각 참가자의 소개, 친목 도모 02: 주제 선정 03: 주제에 대한 선행 학습 04: 정해진 주제의 각국 입장과 의견 토론 05: 정해진 주제의 각국 입장과 의견 토론 06: 모의 회의 진행 07: 모의 회의 진행 08: 모의 회의 진행 09: 회의 개최 10: 평가 및 마무리
정 리 (활동 후)	1. 결과보고 발표회 2. 행사참가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6) 한일 청소년, EEZ 탐험대
참가대상	한·일 청소년(만 15~24세)
참가인원	30명
활동기간	6일
활동장소	독도~시마네 현
활동목표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한일 양국의 동해와 남해 일부의 EEZ 지역을 탐사하며 어족 자원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EEZ 경계획정과 독도 문제에 대해 양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평화로운 협의 방법을 모색해 본다.
활동주제	한일 양국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약 40만원)
활동단계	활동내용
활동준비	1.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에 보고 2. 모집을 통해 참가자 선발 3. 사전 강연 및 회의 : 일정 안내, 안전 교육, 참가자 토론 준비
활동	1. 한일 청소년의 독도 방문 독도 주민들과의 만남 독도 본부에서의 한일 분쟁에 관한 강연 독도 박물관 관람 2. 항해 체험(독도~시마네 현) 어민들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의견 해양청의 어족자원 현황 설명 4. 한일 청소년의 시마네 현 방문 시마네 현 주민들의 입장 : 양국 주민들의 의견 차이 이해 5. 한일 청소년들의 토론 어족자원 보존 방법과 한일 EEZ 분쟁 해결방안 모색
활동 후	1. 참가자들의 느낀 점 발표 2. 한국의 독도, EEZ 정책, 어족자원 보호에 필요한 점 정리 3. 외교 통상부, 해양수산부에 탐험대의 이름으로 의견 올림

프로그램	7) 실크로드 탐방단
참가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참가인원	20명(각국 참가자 5명, 지도자 및 관리책임자 5명)
활동기간	10일
활동장소	서안-우루무치, 둔황
활동목표	먼 옛날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로로 비단을 비롯하여, 거울, 향료, 유리 등 공산품뿐만이 아닌, 음악, 무용, 종교 등 수많은 물품들이 교류하였던 실크로드를 답사하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심성을 강화하고, 각국의 교류를 통한 21세기의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활동주제	Partners for New Silk-road
경비부담	참가자 부담(300,000원), 정부지원(1,200,000원 정도)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활동 전)	-참가자선발 -사전교육 1차 워크숍(실크로드 사전이해와 프로그램 이해) -사전교육 2차 워크숍(프로그램 준비-문화교류 등)
전 개 (활동 시)	-전 참가자대상 현지 워크숍 -실크로드 탐방(둔황석굴, 천불동, 사막썰매, 사막의 수로 카레즈, 모슬렘 무덤, 승마체험 등 다양한 현지프로그램 이용) -협력관계 모색 포럼 -각국의 문화체험 교류(참가자 준비)
정 리 (활동 후)	1. 결과보고 발표회 2. 행사참가자 사후관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지원방안

Ⅶ. 청소년국제교류 추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지원방안

1. 중장기적 청소년교류정책 수립 및 재정확보

동북아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중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중심부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장기적 청소년교류정책개발 기능 강화

개정 청소년기본법(2003.12.30)에서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활동에서 국제교류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수요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하다. 현재 청소년교류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는 정책개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위임한 정부 간 청소년교류업무의 실행부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청소년교류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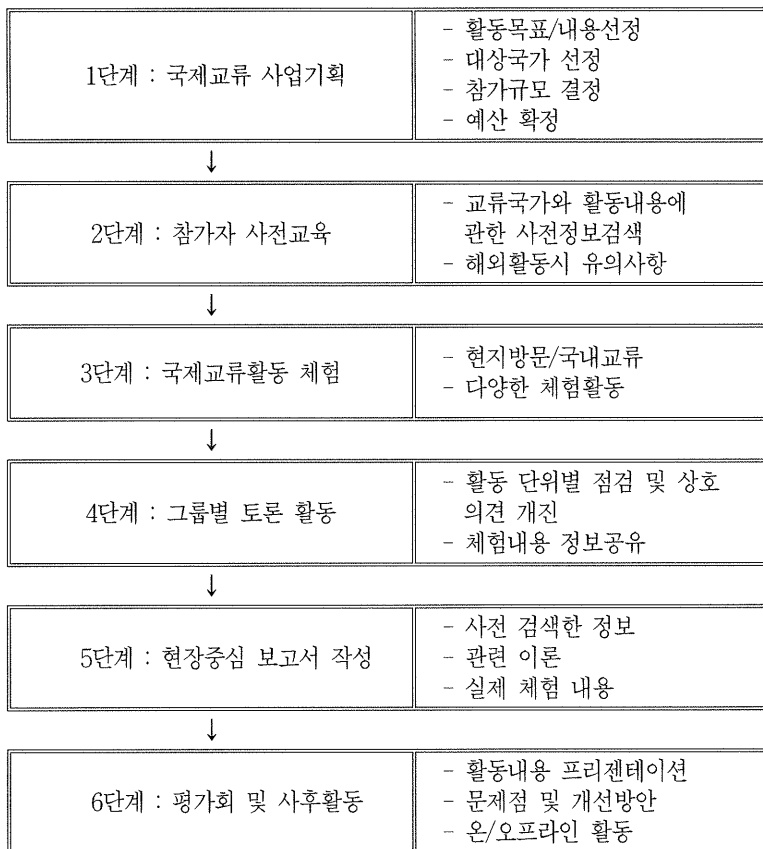
국제관계의 변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전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국제교류 기금의 안정적 확보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국가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

질적인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모두는 사전지식 및 정보검색 내용을 직접 확인할 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④ 제4단계 : 한 가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음 프로그램 전환되는 순간 혹은 하루 일과가 종료된 후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여 당일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그룹별로 정보공유와 토론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경험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계로서 교류활동에서 가장 유익했던 정보 및 개선점들에 관하여 그룹별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 ⑤ 제5단계 : 체계적인 현장보고서 작성은 교류활동 참가자들이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실용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단계에서 보고서 작성요령에 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이미 사전 정보검색 내용과 자신이 현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 그리고 관련된 사실과 이론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한다.
- ⑥ 제6단계 : 평가회 및 사후관리활동에서는 먼저 교류활동 기간에 가장 유익했던 경험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회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자신의 실생활과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프리젠테이션과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국제교류활동이 단순한 추억거리로 비춰진다면 그에 대한 투자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림 VII-3]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체계

이상에서 제시된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류활동 준비 및 평가회 과정과 각각의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매 순간 순간마다 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이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델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유도하는 참여적이며 과정 중심적인 체험학습구조이다.

요약 및 정책제언

VIII.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이다. 2004년도 제1차 기초연구를 통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연구”와 제2차년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도 수행된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의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의 주요 연구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3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 및 실행모형을 탐색하였다.

- ① 아시아공동체(Asia Union)의 비전이 설정 및 문화적 기반을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청소년 국제이해교육 실시 기반 마련
- ②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해저터널 건설,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교역 촉진을 위한 거시적인 프로젝트 추진
- ③ 남북통일을 기점으로 휴전선에 평화도시를 건설하고 아시아 공동체(AU)본부와 아시아 공동대학을 설립
- ④ 아시아 공동체의 통화를 기반으로 단일통화를 만들어 동북아 무역의 결제통화로 대체하는 경제적 기반 조성

둘째, 미래적 지향적 가치에 초점을 둔 중장기적 청소년교류협력시스템과 교류협력모형을 추진주체별로 중앙정부, 학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① 동북아 각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현황 및 실태분석
- ②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법제도 정비
- ③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강화,
- ④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기금조성
- ⑤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과 같은 국제교류 전문 인력확보
- ⑥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 체제 확립

셋째,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협력의 주요 내용, 시사점,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럽형 청소년 교류사업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유럽지역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기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식
- ②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며, 각 국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예산 지원,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을 합의하고 실시하는 쌍방향 복지 및 투자 모델
- ③ 유럽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음

넷째,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의 영역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와 새로운 추진모델을 개발하였다.

- 1)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평가 시 유의사항
- ① 평가자 선정 시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

② 유사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평가결과 참고

③ 평가과정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근본 목적 및 목적, 평가의 본래 취지 반영

2) 영역별 추진모델 개발

국제교류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근거하여 대분류에 체험활동 및 탐구 영역과 자원봉사 및 심성강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효율적인 청소년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 방안 등이 포함된 동북아 공동체 형성 및 청소년교류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1) 중장기적 청소년교류정책 수립 및 재정확보

① 중장기적 청소년교류정책개발 기능 강화

② 청소년국제교류 기금의 안정적 확보

③ 청소년국제교류 특성화 지역개발 및 시설 지원

2)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주도적 역할수행

① 동북아 청소년담당 장관관 및 전문가회의 정기적 개최

②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사업 개발

3)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주체 간 기능 및 역할분담

4)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체계 확립

①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제도적 측면의 추진체계 정비

③ 국제교류 활동 단위별 추진체계 확립

2. 정책제언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청소년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 간의 사회적인 측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차원의 청소년문화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각 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문화공동체형성과 청소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가. 다양한 국제이해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 교육실시

아시아공동체(Asia Union)의 비전 설정 및 문화적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제이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나. 청소년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청소년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개발 및 예산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지원 확대
- ③ 학계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활성화
- ④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 ⑤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다. 청소년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능 강화

이는 향후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분야이다. 먼저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과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청소년국제교

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기능 강화,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 동북아 청소년 장차관 및 전문가회의 정기적 개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지역은 이를 위한 최고 행정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교류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청소년분야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와 같은 최고지도자 혹은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이다.

마.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다양한 사업 개발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 중, 일 청소년 교류는 국가간 교류협정에 의한 한-일 교류, 한-중 교류 형식으로 개별 국가간 교류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개별 국가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아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국 공동의 동북아 청소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바.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주체간 기능 및 역할분담

동북아 각 국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자율권 보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관련 규칙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사. 한중일 국제교류사업으로 『동북아 청소년의 배』 사업추진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계 청년의 배』와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청소년들이 1주에서 4주까지 선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룹 디스커션, 각국의 문화 소개, 클럽활동, 과제활동 등 각종 교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한중일 각 국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 기항지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각 국의 청소년 코어리더 육성 및 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별 혹은 테마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 한중일 청소년교류 촉진을 위한 이동수단 및 이용시설 할인혜택 부여

현재 한일노선과 한중노선의 항공권은 동남아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오히려 여행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북아 공유자유항공권 및 선박할인권』, 『동북아 유스레일 패스』, 『국립공원 및 문화유적지 할인권』,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수련시설 숙박 이용권』, 등을 개발하여 한중일 청소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표 VIII-1〉 동북아 청소년교류협력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분	1단계: (2006~2010)	2단계: (2010~2015)	3단계: (2016년 이후)
	인프라 구축단계	확대 시행단계	안정화 단계
제도	한중일 장차관 회의 개최	동남아시아국가로 확대	지속적 추진
	국제교류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한중일 공동의 국제교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국제교류지원센터 지속적 운영 및 안정화
	국제교류 관련부처 업무 협조체계 구축	지속적 업무협약(정기 협의회 구성)	
	추진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간 협조체계구축	지속적 업무협약(정기 협의회 구성)	
재정	기금 조성 및 운영모델 개발	중앙정부 기금 조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속적 확보 및 기업체 기부로 확산
전문 인력	교류전문지도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양성과정 개선 및 운영	양성과정 개선 및 운영
	교류전문지도자 양성 로드맵 도출	교류전문지도자 양성 및 배치 (지도자 교환 배치)	교류전문지도자 양성 및 배치 (지도자 교환배치)
	직무연수개발	직무연수 개선 및 운영	직무연수 개선 및 운영
프로 그램	특성화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개발	특성화 교류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 보급 및 지속적 운영
	교류프로그램 실태조사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통합 정보망 구축	정보제공 및 관리	정보제공 및 관리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백서 발간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길현,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자료』,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강병희·박노보·이정주, 『지역으로부터의 국제화』, 대구: 지역발전 연구센터 출판부, 1995.
- 강영배·황성하,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연령별 차별화』,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2003.
- 권일남,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서울: 농 어촌청소년육성재단, 2003.
-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출판사, 1994.
-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안제 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문각, 1994.
- 김완순 외,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서울: 무역경영사, 2000.
- 김유남 외,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21세기)』, 서울: 박영사, 2000.
- 김은정,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3.
- , 『청소년관련법 제(개)정 설명자료』, 서울: 문화관광부, 2004.
-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2005년도 시행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2005.
- 오해섭,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오해섭, 『지방청소년 행정기능 강화 및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오해섭·윤철경,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3, 2004』, 서울: 외교통상부.
- 윤철경,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9.
- 윤철경·김안나·김성희, 『한·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윤철경·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윤철경·이상오·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민희 외, 『청소년교류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이은재,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 이종원, 『고교생 생활·의식 국제비교조사-한·중·일·미 4개국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정희옥·전경숙·권오실,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영승,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3.
- 지방정부국제화재단,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정부국제 교류재단, 2003.
- _____,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정부국제 교류재단, 2004.
-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2001.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년 연구원, 1991.

2. 학술논문

- 강길현,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9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03.
- 강영배,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다면적 고찰 및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2004.
- 구창모,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3권 제5호 한국체육학회, 2004.
- 권경득,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경남개발》, 제39호 경남개발연구원, 1999.
- 권일남·남부현,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6권 제3호 한국농업학회, 2004.
- 김문환, 「지방정부의 국제문화교류」, 《국제교류》, Vol. 34 서울: 한국지방정부국제화재단, 1999.
- 박용길, 「국제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강원도의 국제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 박진규, 「우리나라 국제 청소년교류 현황과 교류유형 탐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2004.
- 양기호,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한·중·일 지방간 국제교류」, 《일본연구논총》, 제20호 현대일본학회, 2004.
- 조혜영,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의식과 한·중 청소년 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2003.

3. 학위논문

김은정, 「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 국외자료

ASEAN Foundation. Projects and Accomplishments.(Indonesia: ASEAN Foundation, 2003)

ASEAN University Network. ASEAN Studies Programme Syllabi. (Thailand: Bangjark Print, 2003a)

_____.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3. Issue 2. (Thailand: Bangjark Print, 2002)

_____.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4. Issue 1. (Thailand: Bangjark Print, 2003b)

_____.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5. Issue 1. (Thailand: Bangjark Print, 2004)

Brecher, R, & Diaz-Alejandro. C, “Tariffs, Foreign Capital and Immiserizing Growth”(*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1)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1939)

Daniels, P.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of Service and*

- Metropolitan Areas*, in John Broatch et al.(eds, 1991)
- Deng, Shengliang, & Lawrence, Wortzel. H. "Importer Behavior: Guidelines for Asian Exporter"(*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2(1), 1995)
- Dzubay, D. *Understanding Motivation & Supporting Teacher Renewal*(Quality Teaching and Learning Series, 2001)
- Frankel, J. *International Theory and the Behaviour of States* (Oxford Univ. Press, 1973)
- Friedmann, J.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Newbury Park. C.A: Sage, 1973)
- Kalisch, K. R. *The Role of the Instructor in the Outward Bound Educational Process*(Wisconsin: Wheaton College, 1999)

5. 기타자료

ASEAN Foundation.

<http://www.aseanfoundation.org>

AUN ASEAN University Network.

<http://www.aun.chula.ac.th/Aunactivity.htm>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http://www.fry.or.kr/bbs/mbbs>

Philippine Culture and Information.

<http://www.pia.gov.ph/philinfo>

AUN/SEED-Net JICA. <http://www.seed-net.org>

Youth@ASEAN. <http://www.aseanyouth.org>

한국YFU(Youth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Korea).

[http:// www.yfukorea.org/new4.htm](http://www.yfukorea.org/new4.ht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협동연구사업명”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01-01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Ⅲ) - 종합편	통일연구원
06-01-02	동북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과 모델: 평화, 역사, 지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사단법인 평화포럼
06-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북한대학원 대학교
06-01-04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 방안 모색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06-01-05	동북아 대중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국학 중앙연구원
06-01-06	한국-동남아시아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06-01-07	동북아공동체의 사법기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연구원
06-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공동체 형성 모형과 전략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06-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연구(Ⅲ) : 법적접근체계개발	한국법제 연구원
06-01-10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모형 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한국청소년 개발원
06-01-11	동북아지역 치안확보를 위한 공동범죄통제 기구의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06-01-12	동북아시아 3국의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 개발원
06-01-13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지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국신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이교덕 선임연구위원 송정호 책임연구위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배정호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정숙 책임연구위원
	사단법인 평화포럼	이기호 사무총장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상임운영위원장
협력 연구 기관	연세대학교		임성모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조교수	
	방송위원회		김재철 대외협력 부장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전영선 연구교수
	한국청소년 개발원		윤철경 연구위원
	한세대학교		이우승 교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우준 교수	최운도 전문연구위원 김예경 전문연구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교수	양영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송도영 교수 권영주 교수
	안양대학교		이응철 교수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서중석 소장	권승호 부소장 최태영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수석연구원	김정해 부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정창화 교수
	한국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연구위원	윤여인 연구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박병석 교수
	대진대학교		김종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위원	송영선 전문연구위원
	국민대학교		박정원 교수
	日本 筑波大學		國分典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오해섭 부연구위원	이민희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이진국 연구위원 도종진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이석희 연구위원	김갑성 부연구위원 한만길 선임연구위원
	中國 北京大學校		施曉光 교수
	日本 武庫川女子大學		中谷彪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민병원 교수
	中國軍縮委員會		李根信 사무총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1-10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발 행 2006년 12월 일

발 행 인 이 종 오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301호
T 02) 571-8313, 571-8342

인 쇄 처 (주) 정인&D T 02)3486-6791 F 02)3486-6790

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함.

